



이 땅에 평화를!

이 민족에 통일을!

구좌번호

*저희 추진본부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모두의 참여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은행	126-20-168507	오충일
한일은행	007-12-068600	오충일
신탁은행	14107-88007370	오충일
조흥은행	301-4-235477	오충일
상업은행	105-05-056658	오충일
외환은행	022-19-09967-6	오충일
농협	032-01-006736	오충일

연락처 (문의사항)

100-200
 서울 중구 삼각동 28-1 금봉빌딩 604호
 Tel : 736-3654 / 3655, 730-8939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자료집

SAe.a.10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 민족대회 추진본부

결의대회 시

고 은

지금 이 대회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이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평화 너무나 큰 일이므로
이 땅에서의 통일 너무나 큰 일이므로
그동안 이것을 소리 높여 부르짖어온것으로
역사변혁의 씨날 삼아
이제 여기 우렁차게 부르짖음이여

너 평화여 오라
너 통일이여 달려오라 오라

평화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평화란
첫째 모든 핵을 추방해야 하는 운동이다
평화란 무엇인가
저 한적한 마을에 풍년 들고
빨래 널려
바람에 펄럭이며 마르는 풍경 그것이다

그러나 평화란
그런 고향의 풍경을
대번 죽음의 폐허로 만드는 전쟁을
그 전쟁을 소멸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렇다
평화란 바로 전쟁과의 싸움이다
수도 해야될 수 없는
미국의 선제공격용 전술핵이 가득찬
이 땅 한반도에서
그것들을 사그리 폐기해버려야 하는 싸움이다
진정한 평화란

오늘 우리는 분단의 악이 지배하는 나날을 살고 있다.
이 땅의 분단을 악화시켜 분단을 틀어쥐고
이 땅의 분단을 영구화시켜
분단의 이익을 삼켜버리는 자
그 자들 몇나라 세력에
우리는 길들여져 어이없구나

그리하여 분단만이 행복인
분단 기득권이 커가는구나
안된다
안된다
안돼

여기 외세와 매판의 혈맹으로 하여금
이 땅 독재자가 나타난다
마구 싸죽이고
마구 빼앗고
마구 강도질하는
군부독재가 나타난다

그렇다
분단은 독재 밖에 낼 수 없다
분단은 착취와 기만 밖에 낼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실은 통일로 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나

오늘 이 세계대회 마무리는 이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의 불로 강철을 뚫어
이것을 확인하고 확인한다

보라 평화에는 전쟁의 승리가 아닌
위대한 승리가 있다
그 승리아말로
이 땅의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의 공유이다

보라 통일은 한반도 통일로부터
세계 평화가 열리는
인류 전부의 승리이다
그 승리아말로
그 누구에게도 독점될 수 없는
만국의 승리이다

여기 이 결의대회
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마지막 결의대회는 무엇인가
여기서 채택하는 바 결의야말로
악의 시대로부터
아름다운 시대를 낳는 운동이다

이 결의야말로
싸움의 선전포고이다
이 결의야말로
핵탄두 하나하나를 밀어부치고
휴전선 삼엄한 가시철망 싹 쓸어 걷어내고
온 세상 사람들 불러다가

우리 모두 노루처럼 들토끼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뛰노는 날
민족 각자와
전세계의 이름으로 베푸는 잔치
그 잔치 이룩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고행이다
그렇지 않은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회여
너 진리의 아들이여

인권 자료실		
등록일	등록자	사유

서 문

이 땅에 평화를! 이 민족에게 통일을!

멀리 세계 여러나라에서 찾아온 평화운동지도자들과 나라안 평화 사랑대중들의 열렬한 참여아래 8월대회가 역사적으로 끝마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참가자들에 대한 강제출국, 강제연행 등 국제적 체면마저 망각한 폭력과 원천봉쇄 등 비열한 대회파괴행위가 현 독재권력에 의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감명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8월세계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세계평화의 길은 냉전 논리와 냉전구조의 완전한 청산에 있는바 냉전구조의 최대 희생국은 이땅 한반도임을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탐욕적이고 침략적인 외래세력이 한국내의 반동세력과 결탁하여 유일하게 냉전찌꺼기를 온존하며 저들의 이해타산을 수판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군부·관료·재벌 등 극히 소수를 제외한 절대다수의 민중들은 냉전구조를 추호도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냉전구조 해소의 실천적 방안은 분단극복을 위한 평화적·자주적 통일방안과 그 방안의 전제로서 남북간에 방치되어 있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간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군비축소, 외세의 간섭거부, 핵무기 철거와 인적·물적 교류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일관되어야 함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나라 밖과 나라 안의 평화애호인들의 반전 반핵을 핵심으로 한 평화운동의 의지는 하늘을 찌르고 그 정열은 열화와 같아서 공권력을 포함한 어떤 힘으로도 이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평화운동 국제연대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국제적 연대투쟁이 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서는 완전 봉쇄되고 금기시되었던 반전 반핵의 기치가 이번 8월대회에서 높이 치켜들어져 민족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힘이 누구에 의해서도 거부될 수 없다는 하나의 사례가 나타난 것입니다.

9월초인 오늘 올림픽 성화봉은 방방곡곡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화가 불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나라 젊은이들의 정혼이 불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세 소년이 수은중독에 죽어갔는데, 산업재해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숨소리가 거치는데, 수많은 양심수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리고 진정 같은 동포인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사실상 원천 봉쇄되어 단독 분단올림픽이 강행되고 있는데, 재물에 눈이 어두운 이른바 세계학자, 예술인, 운동인들이 흥청거리며 미장된 한국을 예찬하는 가운데 권력자들은 금품을 소나기같이 부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두 외세와 독점과 결탁한 간악한 군부독재권력이 백성의 고향을 찌서 정권연장으로 지배욕을 길이 채우려는 정치노름의 일환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른바 평화제전마저 악용해서 민족분단을 고착시키고 정권욕을 채우려는 독재권력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싸움을 한시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날로 깊어가는 민중의 아픔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다가 갇힌 양심수들을 그대로 고통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날로 굳어져 가는 분단의 벽을 그대로 놓아 둘 수는 없습니다. 거래의 생명을 송두리채 앗아가는 핵무기를 그대로 심어둘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민중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쓰러져가는 나라의 운명, 권력의 마취에 흐느적거리느 지각없는 사람들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대회에서 권력의 방해도 방해려니와 우리 자체의 역량이 모자라서 원숙한 대회를 치루지 못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다가오는 범민족대회야말로 지난 세계대회의 미숙을 불식하고 훌륭하게 치를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범민족대회를 통해 한민족의 자주민임을 내외에 천명하고 누구에게도 침탈, 예속될 수 없고 누구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한민족이 스스로가 한반도를 이끌고 번영토록 하리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층 민중의 삶의 문제를 7천만이 함께 고민하고 사회의 모순과 대립을 극복하는 여러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시대입니다. 뿔어오르는 민족의 힘을 발휘하여 독재·독점·외세를 제거하고 민족의 한마당을 펼쳐봅시다. 범민족대회의 깃발아래로 모여 겨레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힘을 모아 봅시다.

1988. 9.10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공동대회장 桂 勳 梯

세계대회를 총괄하며

1. 세계대회 개최의 의의

1988년은 향후 한반도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한 제 24차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이번 올림픽이 민족화해와 민족통일을 위한 공동올림픽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에 의해서 조장되는 분열과 대립의 이데올로기는 분단-독재 올림픽을 피함으로써 인류평화의 제전이라고 할 올림픽의 이념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초에 평화연구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한국내 민주단체들의 주체적 참여와 논의에 의해 올림픽을 앞둔 8월말 남한의 모든 애국민주세력이 한데로 결집하여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향을 확인하고 전국민적인 실천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87년 6월 국민항쟁이후 7,8,9월의 노동자들의 대투쟁, 대통령 선거, 총선거를 거치면서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각된 힘은 스스로 자주적인 권리를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면서 역사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서고 있고, 이제는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태인 민족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에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민족민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애국민주세력과 민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자는데 세계대회개최의 기본취지가 있었습니다.

세계대회는 이러한 취지 아래서

첫째, 학술·문화행사, 대중집회 등의 다양하고 입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반전반핵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평화운동의 새로운 축을 세우고

둘째, 국내 애국민주운동의 공동사업을 통해 대내적 결속을 높이고, 나아가 해외 애국동포들과 세계평화애호세력들과의 굳은 연대를 통해 국제적 연대의 기초를 닦는 것.

셋째, 88올림픽을 앞두고 확장된 공간속에서 한반도의 분단구조·전쟁구조의 본질을 널리 선

전하고, 평화구조의 정착, 겨레의 단합과 민족화해를 통한 조국통일운동의 일보전진에 기여하는 것.

등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2. 준비과정 및 일지

7월초 평화연구소에서 제안된 “세계대회”는 이후 20여개 단체의 대표들이 7차례에 걸친 준비소위 모임을 갖고 세계대회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 동시에 필요한 실무적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된 것은, 한반도가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한 지역중의 하나이며, 더우기 그 숫자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공할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반전반핵, 평화의 이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조국통일 운동이 점차 대중적으로 확산 고양되고 있는 현국면에서 통일운동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국제화시키는 계기로서 세계대회의 의미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세계대회를 통하여 민족 민주운동세력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 한반도 모순위구조를 규명해내고, 이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고, 통일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와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같은 취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 민주단체, 부문 및 국민대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준비소위는 세계대회에 대한 제안을 통해 각 부분을 다양하게 접촉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7월 27일 6차 준비소위 모임에서는 8월 세계대회에 이어 9월 올림픽 기간 중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는 제안이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서총련은 그간 8월 세계대회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첫째, 8월대회의 기본향도가 애매한 점이 있는데, 이는 자주, 민주, 통일의 지향과 평화라는 개념이 분절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해됨으로써 비롯되었다는 점, 둘째, 민주단체내의 여러가지 난맥상으로 인해서 향후 조국통일운동의 전개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이 부족한 조건속에서 대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급한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대회준비가 역동성을 높이 발휘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학술·문화 행사등 실무 준비에 치중되어 왔던 점 등을 지적하면서 세계대회를 범민족대회의 전망을 가지고 이의 연장선 상에서 준비해 나갈것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7월 27일 열린 준비소위와 재야 사회단체 중진급들간의 연석회의에서는 서총련의 문제의식과 제안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범민족대회는 민족적 비원인 조국통일을 남북한 6천만동포, 그리고 해외 동포등 7천만 동포가 주체가 되어 이룩하고자 하는 범민족적 대동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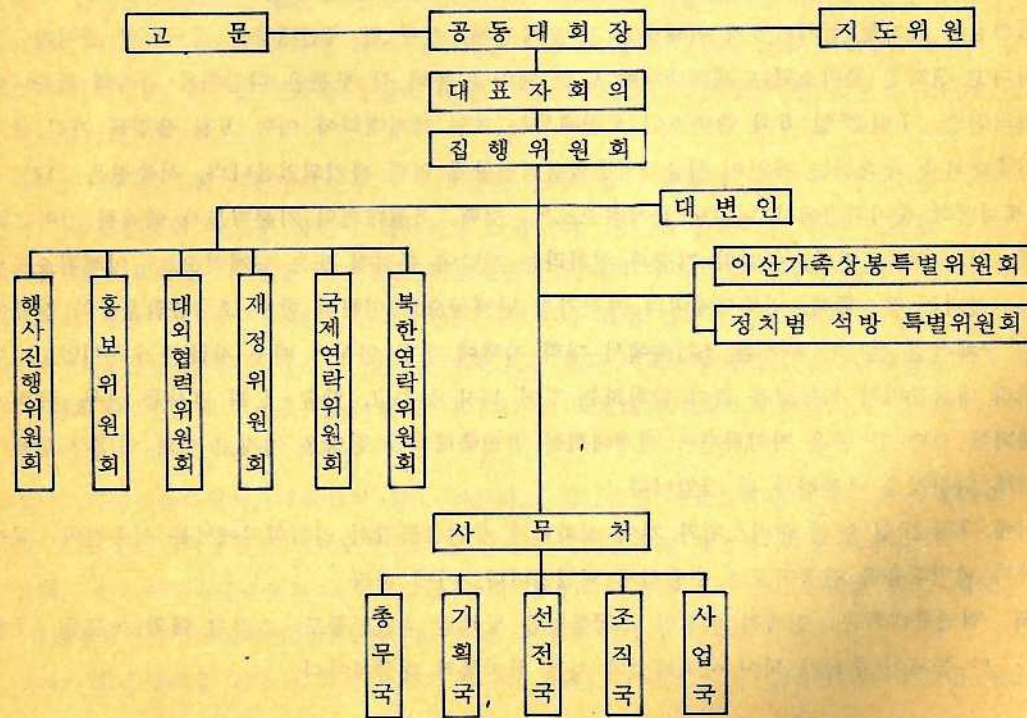
둘째, 8월 세계대회와 9월 범민족대회는 동일한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본부를 결성한다.

셋째, 8월 세계대회와 9월 범민족대회는 현재의 분단상황을 규정하는 제반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한 대중적 결의를 모으는 장으로서 평화협정체결 핵무기 철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본부 일지>

- 7월 3일 평화연구소 첫 제안서 발송
- 7월 3일~25일 6차에 걸친 준비소위 회의 진행
- 7월 26일 서총련, 기간논의에 대한 입장과 문제제기 제안서 제출
- 7월 27일 재야 사회단체 증진급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결성의 기본내용 합의
- 7월 28일 개인서명을 원칙으로 '발기인 서명'을 추진
- 8월 3일 총 1,014명 각계각층인사의 발기인 서명결과를 기초로 「추진본부」 발기인 대표단 기자회견
- 8월 8일 오후 6시 기독교 회관 2층 강당에서 「추진본부」 발족식
- 8월 20일 오후 6시 종로성당에서 「추진본부」 발기인 대회
- 8월 23일~2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개최

3. 추진본부 조직구성



- 고 문 : 표문태, 백기완
- 공동대회장 : 문익환, 계훈제, 박형규, 이소선, 강석주
- 지도위원 : 이우정, 박순경, 조용술, 김병걸, 김규동, 최장학, 신경림, 고 은, 백낙청, 황석영, 김희선, 김재훈, 이상락, 김혜경 등
- 대표자회의 : 이부영, 장기표, 이창복, 오영식 (전대협위원장), 지선, 명진 (이상불교) 고헌식, 양연수 (이상 도시빈민운동) 노동, 농민부문에서 2~3인, 여성, 법조, 언론, 보건, 의료, 학계교육, 문화, 가톨릭, 개신교에서 각1인.
- 집행위원회 :
 - 위원장 : 오 충 일
 - 부위원장 : 김 승 오, 종 태
 - 대변인 : 이 재 오
 - 부대변인 : 김 도 연, 박 우 섭
 - 행사진행위원장 : 연 성 수
 - 홍보위원장 : 김 도 연
 - 대외협력위원장 : 최 열
 - 재정위원장 : 오 충 일
 - 국제연락위원장 : 조 성 우
 - 북한연락위원장 : 종 태

4. 세계대회 진행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는 첫째, 한반도 비핵지대화 둘째, 핵무기의 철수, 주한미군의 철수 셋째,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불가침 선언 채택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하여 그 내용을 대회 행사속에서 성과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학술·문화행사와 대중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 정권의 파렴치한 대회원천봉쇄 작태로 인해 장소가 바뀌거나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일도 있었지만 참가자들의 열띤 성원속에 다음의 행사를 무사히 치뤄내었습니다.

<행사일정>

8.23 (화)	=집회참가자 오리엔테이션= 9시 여전도회관 1. 참가자소개 2. 대회일정 및 내용 소개	=개막식= 5시 고려대 민주광장 1부: 세계대회 선언식 2부: 열림굿 3부: 통일기원촛불행진	
8.24 (수)	=1차 학술 세미나= 14:00~17:00, 종로성당 주제: 세계 위기구조 속에서의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피폭자 대회= 5:00 고려대강당 1부: 슬라이드 상영 2부: 피폭자 증언	=반전반핵 결의대회= 7시 고려대 민주광장 1부: 강연 2부: 노래와 공연 3부: 결의문 채택
8.25 (목)	=정치범 석방 촉구대회= 10:30~12:00 청주감호소앞 강연, 결의문 채택		=광주대회= 19:00~2:00 광주 광주학살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대회
8.26 (금)		=2차 학술세미나= 14:00~18:00 여성백인회관 주제: 한반도 통일운동의 전개와 과제	=통일굿= 19:30~22:00 한양대노천극장 풍물, 춤, 노래
8.27 (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1차 국민대회= 14:00~17:00 고려대강당 기조발표, 각부문별 결의	=노동평화 마당굿= 19:00~22:00 한양대노천극장 1부: 해방노래 발표회 2부: 공연
8.28 (일)	=통일기원 대동제= 10:30~12:30 임진각에서 1부: 집회 (2부: 통일기원장승제)	=도시빈민대회= 14:00~16:00 성대 금잔디광장 1부: 도시빈민공동투쟁 결성식 2부: 결의대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2차 국민대회= 16:00~ 성대 금잔디광장 1부: 평화선언과 결의 2부: 폐막식 (통일기원장승제)

* 28일 임진각에서 열릴 예정이던 통일기원대동제는 폭력경찰의 강경탄압으로 파주에서, 약식으로 1부만 진행하고, 2부의 통일기원 장승제 행사는 성균관대에서 열린 세계대회폐막식에 이어 진행하였습니다.

5. 해외 참가자 소개

이번 세계대회는 필리핀, 미국, 일본, 서독, 멕시코 등 세계 곳곳에서 13명 이상의 평화의 사절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장애요소에 의해서 막혀있던 국제연대의 현실을 감안할때, 이 분들이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서울을 찾아오신 것은 이번대회의 매우 중요한 성과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현 정권은 국내 애국세력과 해외 평화애호세력과의 연대가 모색되고 있는 것에 당황하여, 파렴치하게도 이들 입국자들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을 핑계로 강제 연행· 강제출국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총 13명의 참석자 중에서 강제출국되지 않은 사람은 몇명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번 대회를 빛내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

- Professor Renato Constantino (70세)
필리핀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로 40여년간 재직
필리핀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진보적인 민족주의 학자
필리핀내의 고전적인 의식화 저서들을 다수 집필
필리핀 반제민족해방운동에 지대한 정신적 역할을 하고 있음.
- Bishop Antonino Nepomuceno (63세)
카톨릭 주교로서 필리핀의 반전반핵운동의 창시자중 하나
30여년간 '필리핀 기초 공동체' (Philli, Base Community)에서 활동.
미국의 침략과 필리핀내의 미군기지 및 제국주의적 정책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투쟁해옴.
- Enrique Delacruz (45세, 미국거주)
필리핀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정치적 이유로 도미.
현재 미국내의 필리핀인들의 해방운동 단체들의 연합인 'Alliance for Philippine Concerns'의 의장
- Gloria Bouis (35세, 여, 미국거주)
역시 'Alliance for Phillipine Concerns' (APC)의 미 동부지역 책임자
워싱턴의 'Washington Forum on Phillipine'의 책임자
'한반도의 비핵화와 자주를 위한 위원회'의 실행위원

<멕시코>

- Christian Dela-Rosa (26세, 여, 미국거주)
멕시코계로 감리교 여성목사
미 감리교내의 교회 사회국의 「국내-국제문제 세미나」의 리더이며, 중남미 해방운동에 관여하면서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와 자주를 위한 위원회'의 실행위원.

< 서 독 >

- Jürgen Maier (25세)
서독 녹색당 중앙상임위원 이자 국제부장

< 재미동포 >

- 정기열 (35세, 미국거주)
메릴랜드大 교목
'한반도의 비핵화와 자주를 위한 위원회' 공동의장

< 미 국 >

- Sue Bailey (31세, 여)
미국내의 가장 진보적인 반전반핵 해방운동단체의 하나인 'Peoples Anti-War Mobilization' (국민 반전행동)의 워싱턴 책임자
'US out of Korea Committee' (한국으로부터 미국축출위원회)도 스스로 조직해낼 정도로 미국내의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유일한 조직.
'한반도의 비핵화와 자주를 위한 위원회'의 실행위원

- Charles Scheiner (37세)
미국내의 반전반핵 평화운동 단체인 'US War Resisters League' (미 반전동맹)의 실행위원.
'National Mobilization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국민행동)의 총무위원.
특히 한반도와 태평양, 아시아 문제의 전문가.
일본에서 열린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참석후 세계대회에 참석키 위해 입국했었음.

< 일 본 >

- 이시구로 도라끼 (82세)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 대표위원
개신교 목사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88년 8.1~8.10) 공식파견자
- 야마시다 히로부미 (54세)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 나카사카 사무국장
'원수폭금지 세계대회' 공식파견자
-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50세)
「토마호크 반대 전국운동」의 대표
순수 시민운동의 핵심인물
- 무토 이찌오 (56세)
「태평양-아시아 자료센터」 대표

대회관계 주요문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 취지문

통한의 휴전선이 남북을 갈라, 허리잘린 조국을 부동켜안고 살아온지 어언 44년!

골수에 사무친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보며, 끊임없이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분단의 장벽아래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민권이 짓밟히는 현실을 목도하며, 우리는 더이상 백척간두에 선 조국의 운명을 방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세에 의한 예측과 굴종의 강요, 역대 군사정권에 의한 강권통치에 맞서 우리 민중은 4.3항쟁,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87년 6~8월 민중항쟁을 통하여 피흘려 싸워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중의 투쟁전통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조국의 분단을 영구화시키고, 핵전쟁의 참화로 몰아 넣으려 하고 있는 국내의외 반민족·반통일 세력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민족적 대단합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전 민족적 통일단결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동포여러분!

지금 정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7천만 동포의 열망이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합성이 통일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각계각층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대단합을 이루기 위한 자주적 교류운동이 삼천리 강토에 메아리치고 있고 또한 세계적 정세도 긴장완화와 인류 대화합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어떠합니까? 6.25전쟁이 종결된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휴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으며 더우기, 우리 민족의 의지와 관계 없이 남한 곳곳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들은 우리 민족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에의 열망으로 가득찬 애국청년학생들의 6.10 판문점회담과 8.15 회담은 '대북창구단일화'라

는 논리하에 현 노태우 정권에 의해 거부·봉쇄되고 있으며, 반공국시를 앞세운 이념교육이 강화되는가 하면, 통일논의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도 온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공동 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88 올림픽은 민족의 양분을 영구합법화 시키는 교차승인, UN 동시가입 또는 단독가입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포여러분!

내외 민족 분열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이 결코 조국통일 대장정을 중단시킬 수는 없으며, 7천만 민족의 솟구치고 있는 통일염원은 오히려 날로 드높아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구분단이나 조국통일에의 획기적 전진이나, 단결을 통한 승리나 분열로 인한 패배나를 가름하는 중차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국 민주세력 내부의 오해와 불신, 독선과 아집을 극복하고 민족적 대단합을 이루어내느냐, 각당 각파의 정견과 노선대립을 지속하여 지리멸렬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중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진정한 주인이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것은 계급계층, 각당 각파의 이익에 앞서 민족적 이익을 중심으로 민족 대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다시한번 자각하면서 통일단결의 좌표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4,000만 남한동포, 2,000만 북한동포, 1,000만 해외동포가 총단결하여 통일운동의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자 우선 우리는 전 민족의 단결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농민·도시서민·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총단결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적 주체를 건설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내의 반통일세력의 민족 분열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종식시키며, 민족적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운동, 민족운동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동포여러분!

이에 우리는 전 민족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을 높이 받들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를 추진하고자 하며 거족적 차원에서 '대회추진본부'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8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이를 통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세계 평화사랑 대중들과 함께 결의하고 그 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차단돼 있던 국제적 교류의 물꼬를 트는 첫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8월 세계대회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9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에서는 남·북한 해외동포들이 범민족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남·북의 통일방안을 검토하고, 통일을 위한 실천과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며 그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민주·통일의 밝아오는 새날을 앞당기기 위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우국 충정으로 각계각층 국민들의 거족적 참여를 호소합니다. 내외의 민족 분열주의자를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신기원을 이룩하기 위한 국민운동,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1일

발기인 일동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족선언문

파란 조국의 하늘에 평화와 통일의 새물결이 넘쳐 흐르는 오늘!!

7천만 동포의 가슴벅찬 통일열망을 한데 모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의 발족을 내외에 선언한다.

지금 우리는, 또다시 예측과 분단의 역사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설 것인가 하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서있다.

조국을 보라!

한핏줄 한마음으로 반만년 역사를 보듬고 살아온 백의민족은 어찌하여 형제의 심장에 총칼을 겨누고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가? 동족간의 전쟁준비에 쏟아낸 민족의 피와 땀은 그 얼마이던가?

일천만 이산가족의 찢겨진 가슴은 언제 치유될 수 있단 말인가? 강대국의 핵무기 전시장이 되어버린 한반도의 운명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제 더이상 갈라져서 살 수는 없다.

이제 더이상 핵전쟁의 공포, 외세와 독재정권의 강압에 억눌려 지낼 수는 없다.

7천만 동포의 머리와 가슴을 엮어매고 있는 녹슨 휴전선은 기필코 없애야 하며, 끊어진 조국의 혈맥은 하나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7천만 동포의 절절한 통일의 염원은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흐르고 있다. 구국의 일념에 불타는 청년학생들의 6.10, 8.15 남북청년학생회담 추진은 7천만 애국동포의 가슴가슴에 통일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게 되었으며, 87년 6~8월의 민주항쟁으로 스스로 역사의 주인임을 선언한 국민대중은 이제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힘차게 나서고 있다. 각계각층의 남북자주교류운동과 공동올림픽쟁취운동은 반평화, 반통일세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면서, 내외동포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평화애호민주세력의 광범위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전민족적, 전인류적 의지의 표현이며 다가오는 올림픽이 세계평화와 한민족의 통일에 일대전기가 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다. 당면의 올림픽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보탬이 될 아무런 전망도 제시하지 못한채, 개최될 위협에 처해있다.

우리는 역대 올림픽이 강대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 본래의 정신이 왜곡 굴절되었고 더우기 상업주의에 깊숙히 오염되어 있으며, 올림픽개최 결정과정에서 정작 주체인 국민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점 등은 일단 접어두기로 한다. 우리는 올림픽이 민중의 생존을 철저히 짓밟으면서 준비되었고 한반도의 영구분단의 음모속에 개최될 위협에 놓여있다는 사실에 전율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단독재올림픽을 저지하고, 통일올림픽을 성사시켜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드높이고자

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올림픽을 전후한 현시기에 민족의 분열과 대립을 일소하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고자 한다.

올해 88년은 한반도가 분단과 예측의 길로 떨어지는 오욕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7천만 애국동포의 하나와 같은 통일에의 결의와 실천을 통해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한결같이 단결하여 투쟁해야 한다.

8월의 세계대회와 9월 올림픽기간 중에 개최될 범민족대회는 이와 같은 범국민적 결의를 하나로 모으는 실천적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대회추진본부는 발족하는 것이다. 세계대회는 그동안의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국민적 결의를 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협정체결, 군비축소, 비핵지대화운동을 위한 대중적 기초를 마련하며 이를 세계평화인들과 함께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범민족대회는 세계대회의 성과에 힘입어 통일에의 광범위한 열망과 의지를 한데 모아, 4천만 남한민중과 2천만 북한민중, 천만 해외동포가 함께 한반도의 분단의 벽을 헐어버리기 위한 범민족적 실천을 결의하는 한마당으로 될 것이다. 두 대회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결의와 대중적 토대위에서 개최되어야만 그 성과가 확보 확장될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겠는바, 대회추진본부에서는 민족의 자주권 회복과 조국의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하여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공동의 실천을 통해 함께 나서기를 바라는 바이다.

조국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어깨위에 달려있다.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민족대단결, 평화통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밝아오는 조국의 새날을 향해 나아가자!!

그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투쟁으로 하나와 같이 펼쳐 일어서자!!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피폭 43주년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에 보내는 메시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에 한국 평화대중을 대표하여 동지애적 연대의 뜻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대회가 세계평화운동의 진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며, 또한 앞으로도 귀대회가 세계 평화대중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국제연대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우리는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와 88서울올림픽 기간중에 개최될 “범민족대회”의 준비를 담당할 추진본부를 오늘 결성 하였습니다. 추진본부에는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투신하여 온 민주인사, 애국청년학생, 기층운동활동가 이외에도 일반 국민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강요되고 있는 냉전구조 속에서 미·소 양강대국의 이해와 내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한국 지배세력의 강압에 의해 한국민은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만남과 발전의 기회를 차단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국민대중의 의지와 힘은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두 대회가 세계사적 조망 속에서 한반도의 위기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민족적 결의를 모으고 다지는 대동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땅에 평화운동의 대중적 축을 세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평화대중과의 연대를 굳고 활기차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면서,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에 참가하신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평화운동은 국가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평화대중들의 단결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35년간 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휴전선에 핵지뢰등이 전진배치 되어 있어 핵전쟁의 위험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긴장고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핵을 철수·폐지시키는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술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내지 부분 소위 한정 핵전쟁이 전면 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군비확장이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 틴스피리트 훈련에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자위대도 참가하여 핵전쟁 연습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세계대회와 9월 범민족대회에 가능하신 모든 분들이 부디 참석하시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그것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더불어 확인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에 뜨거운 연대의 뜻을 전하면서 아울러 금번 대회가 뜻 깊고 효과적인 결실을 맞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에 보내는 초청장

수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

발신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공동대표

일시 :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8일

첨부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발기 취지문
및 발족선언문
대회 일정과 계획표

한반도를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해방시키고 남북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조를 평화구조로 바꾸어 평화통일을 앞당기려는 7천만 애국동포의 절절한 염원은 시대의 요구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7천만 동포의 한결같은 요구는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는 평화와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서는가 아니면 대결과 반목을 보다 첨예화시키고 분단을 영구고착시키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7천만 애국동포의 총단결과 남북의 화해가 지금처럼 절박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는 이러한 내외의 요구를 바탕으로 발족되었습니다.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세계대회는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계 평화인과 해외동포 그리고 남북동포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지향과 결의를 집결하는 자리입니다. 8월 세계대회는 7천만 남북동포 및 해외동포의 뜻을 모은 각계각층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조국의 통일 방안을 논의하고 민족의 운명과 장래를 상의하며 민족대단결과 화해를 내외에 과시할 범민족대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본 추진본부는 애국애족의 일념과 구국의 단심으로 대회를 추진할 것이며 뜨거운 동포애로 귀측에 초청의 뜻을 전합니다. 본 추진본부는 귀측 대표단이 8월 세계대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귀측 대표단이 8월 일 시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판문점을 통해 본대회에 참석하실 것을 희망하며 본대회 추진본부 영접사절단이 판문점이나 임진각에서 여러분을 뜨겁게 맞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과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8.15 학생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논의에 있어서 이땅은 철쭉같은 어둠이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것이 차단되어 왔고 이를 위한 구체적 운동은 금기시되어 왔다. 통일의 출발도 통일의 목표도 만남이다. 43년동안 갈라져 있던 민족이 다시 만나는 것은 이제 역사적 요청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다. 젊은이들의 만나고자하는 욕구는 너무 당연한 것이며, 더구나 순수한 학생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최근 학생회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신성한 통일논의가 체제 전복의 무기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통일문제는 결코 신성한 구름위의 그 무엇이 아니며,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아픔으로 분노로 확인되는 일상의 문제인 것이다.

방위산업 운운하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가 차단될때, 어렵게 번돈 방위세로 뜯길때, 두고온 가족친지들 얘기좀 하자면 우선 옆부터 두리번 거릴때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느끼며 통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일상적인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통일에 장애가 되는 체제라면 거부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체제라면 지금의 노력이 부족하더라도 격려되며 당연히 지지를 받을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순수한 동기가 북한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은 학문적 열정으로 기성의 모든 것에 의구심을 품고 거부하고 다시 생각할 특권이 있는 세대이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회는 썩고 말것이다. 모순과 갈등 굴절과 왜곡이 판을치는 사회일수록 가장 상식적인 것들이 매우 급진적으로 비칠 수 있다. 우리는 학생들의 제안이 비록 당돌하게 느껴지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느닷없이 느껴지는 현실을 크게 반성해야 한다.

북한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은 통일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설사 악용될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만나면서 우리가 더는 나뉘어서는 살 수 없다는 공통의 그 절박한 바람들을 확인하면서 통일에의 노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너무 늦었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젊은 학생들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모든 제약조건들에 불구하고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

8.15 남북학생회담은 국민들의 성원속에서 뜨겁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매도되면서 공권력에 의해 8.15 학생회담이 차단당하는 현실에 우리는 부끄러워 하지 않을 수 없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일그러진 우리 현대사를 바로 잡는 그 출발로서 남북학생들의 만남은 반

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갈라진 머리, 가슴, 허리를 하나로 동여매는 감각의 첫발을 내
딛어야 하는 것이다.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11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국민에게 드리는 글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마침내 이 땅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열기가 드높이 솟구치
고 있습니다. 지난 반백년에 가까운 세월 끓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자 한라에서 백두로 백두에
서 한라로 햇불을 지펴 올린 청년학도들의 투쟁에 각계각층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뒤따르고 있
습니다.

청년학생들은 6.10 학생회담에 이어 8.15 학생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조국을 순례하며 판문
점, 통한의 분단선을 향하여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종교인, 언론인, 문인, 법
조인, 보건의료인 등의 공동올림픽 쟁취,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이 연이어 기열차게 벌
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결탁한 노태우정권의 민족분열음모를 분쇄하고 민족분단사를 청산하려
는 온 겨레의 조국평화통일 대행진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태우정권은 미국의 사주하에, 민족의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려는 거족적인 통일
대행진을 수만의 군인과 경찰, 최루탄과 전경차를 앞세워 무참히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라
산 백록담에서 출발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온몸으로 안고 평화적 행진을 벌이는 애국학생들을 무
참히 연행, 구타, 구속하는 야만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들의 애국적이고 의로운 조국순례대행진을 사회혼란을 피하고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행
위로 매도하며 비열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
겠다느니, 정부가 남북교류를 주선하겠다느니 하면서 기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태우
매국정권의 이러한 일면탄압, 일면회유의 교활한 책동은 통일운동을 원천 봉쇄하여 정권연장과
민족분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음모일 뿐입니다. 나아가 저들은 공동올림픽에 대한 겨레의 한결
같은 염원을 무시하고 기필코 단독올림픽을 해치움으로써 두개의 한국을 조작하려 하고 있으며
스스로 호전적인 자들이 전쟁위험을 날조선전하면서 10만이 넘는 군인과 경찰부대를 창설하여
통일운동을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바야흐로 지금 민족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의 새 역사를 앞당기기 위한 전국민적 싸움이 절실
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민족의 힘으로 이룬다는 확고한 의지로 88올림픽을 남북
이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민족화해와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며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
착시킬 것이 어느때보다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길에 의연히 나선 애국청년학생들을 탄압하며, 기만적인 7.7선언을 내세워 국민들의 통
일열망을 깎아내리려는 노태우정권! 판문점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노태우정권의 원천봉쇄를
찬양하는 미국! 이들이 바로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 반민족, 반평화 세력임이 백일하에 드러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이 힘을 합쳐 통일의 새 세상을 맞이하려는 7,000만 국내외 동포들의 결의
는 어느 때보다도 확고부동합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민족의 통일대장정을 멈출 수는 없습
니다. 오직 우리에게 단결과 전진이 있을 따름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는 민족통일을 획기적으로 전진
시키며, 이를 통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자 8월 세계대회, 9월 범민족대회, 그리고 대민족
축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7,000만 애국동포와 세계 평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
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이 자
리에서 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의지, 지원과 참여를 통해서만 이 행
사들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국민을 추진위원으로 모시고자 합
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금으로 행사를 치루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을 가리고 있던 솔뚜껑보다 더 두터운 벽은 날려보내야 합니다. 억울하게 놀리고 빼
앗겼던 세월은 더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 것, 당연히 누리야 할 우리 것, 우리가 찾으려
나섭시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폭력, 구조적 폭력과 단호히 맞서 싸웁시다.

이 땅에서 민족분열세력을 몰아내고 통일의 새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온겨레가 하나가 되어 더
욱 거세게 떨쳐 싸워 나아갑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활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 1. 분단올림픽 저지하고 공동올림픽 쟁취하자!
- 1. 학생회담 성사시켜 민족단합 앞당기자!
- 1.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는 만나야 한다!
- 1. 전쟁반대 핵반대 민족에게 통일을!
- 1. 7천만이 단결하여 민족통일 앞당기자!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천만 해외동포에게 드리는 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조국 강토와 한핏줄, 형제들을 한시도 잊지않고 애국의 단심을 가꾸어 오신 천만 해외동포 여러분!

몸은 비록 대양 건너 먼 이국 땅에 가 있을지라도 두동강난 조국의 온전한 하나됨을 간절히 염원해 오신 여러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천만 해외동포 여러분의 힘겨운 노력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에 보내주신 해외동포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에 저희는 뜨거운 혈연의 정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제 조국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여 저희는 다시한번 해외동포 여러분의 애국충정에 호소합니다.

해외동포 여러분!

제 24회 올림픽의 남북한 공동개최를 실현하여 한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한 각계 각층의 자주적인 교류를 실현하여 한민족 대단결의 기운을 드높이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이시대의 절대절명의 요청입니다. 이 시대의 요청은 남북한 6천만, 그리고 해외의 1천만, 합하여 7천만 한민족이 민족통일의 큰 뜻 아래 일치단결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천만 해외동포 여러분, 8월말과 9월말에 개최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는 이 척박한 땅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용트림치게 해줄 것입니다.

공동올림픽-평화협정-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앞당기는 범민족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화약고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세계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만 해외동포 여러분!

백두와 한라가 하나되는 그날, 영광스러운 통일조국의 새날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안아 옵시다. 몸은 비록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한민족은 결코 둘일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조국통일의 그날은 벌써 저만치 다가와 있습니다.

조국통일 만세!!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민중들에게!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국토는 작지만 오천년 이상의 기록된 역사를 지녀온 오래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한 민족으로서 고유한 언어와 글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번도 남을 침략하거나 압박한 역사가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역사상 수백번의 외침을 당해 오면서도 민족문화를 잃어버리거나 멸망하지 않고 국토와 인민을 보존해온 약소민족 가운데 유일한 고대국가입니다. 우리는 고대 이래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사상이 건국의 이념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하늘의 뜻에 합치되는 사랑으로서 실천되는 세상임을 우리의 조상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서양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물밀듯이 아시아로 몰려왔을 때에 극동의 온둔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미처 주체적인 근대화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한 식구 나라에서 돌연 태평양으로부터 밀려온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줄개로 변하여 총검을 형제에게 들림으로써 저들의 식민지가 되는것을 모면하였으며 서구식 근대화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일본의 전면적 또는 부분적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제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나서 전쟁에 이긴 열강들의 전후 처리과정은 뒤이어 시작된 동서 냉전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국토의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이 점령군으로 진주하여 왔고 민족과 국토가 둘로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같은 때에 중국혁명이 진행 중이었으며 베트남과 한국에서 비슷한 성격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4년 동안이나 계속된 내전으로 수백만이 죽고 수백만의 가족들이 생이별을 당했지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초로서의 평화가 아닌 “휴전”이라는 냉전적 기형아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후 44년, 실로 반세기의 세월이 냉혹하게 흐르는 동안에 남북의 서로 다른 정부는 중오와 대립을 재생산 해왔으며 극대화 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남북을 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 부근에는 백만이 넘는 병력과 지구상에서 가장 가공할 무기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인인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병영이나 요새로 여기고 있는 외세의 뜻이며,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무기가 배치된 땅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생존의 권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외국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인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래 한반도 남쪽에서의 군사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군이며,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자신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언제나 한국의 독재정권을 지원해 왔고 그 권력의 탄생과 유지를 도와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남한에는 1,100발에 이르는 각종의 핵 무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주로 전술 핵무기들이었지만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략핵무기와 한정핵무기들을 마구 들여왔습니다. 미사일, 핵포, 핵폭탄, 핵지뢰, 핵배낭, 핵저장시설 등등이 있다고 미국측 국방정보 자료에 지적되고 있을뿐 우리 국민들은 국내의 사실적 정보 자체로부터 차단되

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한반도라는 군사기지를 확보해 놓고 세계를 협박해 왔습니다.

“여러 주권국가들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유럽에서보다 한반도에서 핵을 쓰기가 훨씬 용이하다.”
“소련이 중동전에 개입할 경우 소련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석유자원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핵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세계에서 핵전쟁을 하기가 가장 좋은 장소는 바다와 한반도이다”

위와 같은 미국측의 공공연한 발언은 현재 남한의 정부를 주권과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 보지 않는 표현이며, 따라서 미국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독재정권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전략상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특권을 한·미 군사협정에 의하여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의 미군 주둔지 가운데 가장 최대의 핵전쟁 훈련이라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하여 매해 봄마다 남한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전 이후 “휴전”이라는 악몽에 시달려 왔습니다.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적마다 우리는 새 날의 태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전쟁과 안보를 차례로 돌이대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중은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첫번째의 근거로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수십년동안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우리가 27년만에 그나마 빼앗겼던 선거권을 겨우 되찾은 것이 이제 1년이 채 못됩니다. 이전에는 핵이라던가, 주둔한 외국군대의 철수를 주장하는 일은 곧 공산주의자나 간첩으로 몰려서 수십년의 징역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캄캄한 어둠의 세월동안 다음과 같은 몇마디의 절규를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것입니다. -내 나라에서 외국군대는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모두 나가라!

세계의 형제적 동지 여러분, 물질에 대한 오만과 반생명적 욕망으로 오늘과 같은 지옥을 형성한 서구 문명의 모든 모순이 이 한반도의 현실 가운데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르는데, 도적을 만나 고난받고 핍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 이기주의로써가 아니라 이 땅의 고난을 뛰어넘을 때에 절망적인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의 세계관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는 우리를 못살게했던 압박자들까지도 구원하고 해방시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중들은 그러므로 진정한 세계평화의 열쇠인 한반도가 핵이 없는 땅이 되어야함을 먼저 소리높이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휴전이 아니라 불가침 선언을 기초로 해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며, 외국군대는 철수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해갈 세계의 벗들이여, 우리의 이 애타는 절규는 강대국들의 제 3세계에 대한 정치 군사적 개입을 반대하는 가장 구체적인 땅의 목소리이며, 이제까지 침묵했던 어둠의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씨인 것입니다. 사람을 하늘같이 모시는 문명을 향하여 함께 나아갑시다!!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8.15 남북청년학생회담 성공 및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대회”에 보내는 연대사

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오늘도 멀리 타국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분투노력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께, 조국으로부터의 뜨거운 격려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바야흐로 현시기는 국내의 7천만동포 모두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엄숙한 장정에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나서고 있는 때입니다.

분단조국 44년! 그 한많은 세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찢겨진 조국의 허리를 부둥켜안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를 상시적 군사대결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휴전협정은 하루라도 빨리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조국에서 핵무기와 외국군대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외세와 비도덕적인 독재정권에 의해서 조장되는 분열과 불신의 벽은 7천만 애국 동포의 손에 의해서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7천만 동포입니다.

지금 이땅에서는 8.15 남북학생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남북 청년학생들의 노력이 각계각층의 뜨거운 호응과 지지속에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족화해와 자주적 교류를 위한 이번 회담은 어떠한 탄압과 위협에도 상관없이 반드시 성사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의 장벽과 최루탄, 곤봉이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 할지라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7천만 동포의 염원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금번 뉴욕에서 개최되고 있는 “해외동포대회”는 한반도에서의 통일의 기운이 날로 드높아가고 민족대단결의 염원이 더욱 뜨거워지는 현시기에 열림으로써 매우 뜻깊은 대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는 한반도 통일의 주인이 바로 남·북한 6천만 동포와 천만 해외동포동, 7천만 애국동포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특히, 그동안 조국을 떠나서까지 이데올로기와 분단의 장벽에 의해서 서로 미워하고 불신했을지도 모를 해외동포가 한자리에 모여 7천만동포의 하나됨을 내외에 과시하는 민족대단결의 한마당이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8.15 학생회담에 대한 해외동포 여러분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이야말로 학생회담을 성사시키고 나아가 조국의 진정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되는 날 가슴벅찬 감격으로 통일된 조국의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서 함께 만날날을 기약하면서 “해외동포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한겨레운동미주연합” 및 “재미한국청년연합” 동지여러분들의 정의로운 투쟁의 앞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쟁반대! 핵반대! 민족에게 통일을!!
7천만동포 한데뭉쳐 민족통일 쟁취하자!
남북학생회담 성사시켜 조국통일 앞당기자!
민족통일 만세!!
해외동포대회 만세!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14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평화사절 수베일리씨와 찰스사이너씨를 즉각 석방하라!

8월 20일 12시 30분경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참석차 입국한 미국인 수 베일리(31세, 여, 반전반핵 단체인 [국민반전행동] 워싱턴 책임자), 찰스 사이너(평화단체인 [생존을 위한 국민행동] 총무) 씨가 숙소인 서울·성북구 안암동 삼익아파트 1동 1306호에서 나오던 중 서울시경외사과를 자칭하는 형사 10여명에게 강제연행. 현재 시경 별관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 베일리씨와 찰스 사이너씨는 제3세계에 평화운동 특히 한반도문제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인사들이다. 현 정부는 이들이 지난 8월 15일 연대에서 열린 전대협 주최 8.15 남북 학생회담 출정식에 참석, 연설한 사실을 문제삼아 입국목적외 활동이라는 이유를 들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어야 할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이역만리 지구를 반바퀴 돌아 한반도통일을 위해 찾아온 외국손님을 무차별 연행·조사하는 작태는 현 정부의 파렴치함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추진본부는 현 정권에게 외국손님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것을 요구한다. 만약 구금이나 강제 국외추방 같은 비인도적 처사를 저지를 경우, 이는 현정부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임을 강력히 충고한다.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20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세계대회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국민은 진정한 평화의 제전, 민족화해의 장으로 이번 제 24차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당국이 보인 처사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세계평화, 민족화해를 저해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1천여명이 넘는 양심수가 지금도 정치적 불모로 갇혀 있으며 올림픽 미관을 위해 도시영세민의 생존권이 탄압받고 공동올림픽 성사를 위한 모든 노력도 철저히 봉쇄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을 제정, 이른바 '평화구역'을 선포, 학술, 예술, 관혼상제 등을 제외한 모든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정부당국이 이번 올림픽을 개최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준계엄법에 다름 아닌 임시조치법에 근거, 정부당국은 평화로운 집회, 학술행사로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약칭 '세계대회')에 대한 원천봉쇄 방침을 발표하여 8월 22일 명동성당에서 전야제 행사로 열릴 예정이던 조성만열사 백일제를 차단했다. 이는 학술·관혼상제만은 허용하겠다는 그들의 법제정 내용에도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다.

이번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세계대회는 분단독재 올림픽의 음모를 분쇄, 한반도에서의 준 전시상태, 반평화적 상태를 극복하고 올림픽을 맞아 진정한 세계인의 단합과 화해를 실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는 지극히 평화로운 형식을 띤 학술행사이다.

정부 당국이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세계대회에 대한 원천봉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대회 제반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세계인의 염원을 무시한 채 대회 자체를 차단하는 작태를 계속할 때 전국민적인 강력한 규탄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연구

1. 올림픽정신을 더럽히는 준계엄법인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 이른바 '평화구역'을 즉각 철회하라.
1.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세계대회에 대한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1. 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 해외 반핵 평화운동가들에 대한 강제출국, 미행 등의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올림픽 미관을 빙자한 도시노점상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분단 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23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를 맞이하는 우리의 입장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원자폭탄 투하로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비전투 민간인에게 가해진 유사이래 최대의 이 무차별 살상에서 일본인뿐 아니라 수 많은 우리의 동포도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식민지 조국의 운명처럼 제국주의의 억압과 사슬 속에서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가서는 참담한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후 많은 피폭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해방된 조국에서도 그들은 압박과 설움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불편한 신체와 사회적 냉대는 피폭자들을 엄청난 생활고로 몰고갔고 그 속에서 또 다시 하나 둘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에 피폭자 대회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선 피폭 43주년을 맞는 올해에야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지내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피폭자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회분야에서의 너무나 큰 무관심은 피폭자들을 외로운 싸움으로 몰아갔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대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폭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피폭자들의 고통이 단지 피폭자들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알게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껏 숨어서 지내왔던 피폭자들이 이 기회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한국, 일본, 미국 정부도 피폭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정부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피폭자들에게 보상해야 하며 그 기준은 지난 '87년 11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요구한 23억\$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는 이 지구상에 이러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핵전쟁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발발해서는 안되며, 특히 강대국들의 국가이기주의에 의한 약소국들의 희생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우리에게 죽음만을 약속할 뿐입니다.

일본정부 각성하여 23억불 보상하라!

한국정부 방관말고 피폭자를 보호하라!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23일

한국원폭피해자 2세회 평화의 샘터

반전반핵 결의문

지금 허리질린 한반도 남단에는 민족의 씨를 말리고도 남을 엄청난 숫자의 핵무기가 독침과도 같이 꽂혀있다. 우리 민족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우리가 알까 쉬쉬하며 몰래 배치된 가공할 핵무기는 준전시상태의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는, 7천만 민족의 염원과 세계평화애호인의 지지를 한데 모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반전반핵평화운동으로 떨쳐 일어서고자 한다.

우리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지식인, 애국시민 등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하는 성스러운 운동이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을 거부하면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핵우산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반평화, 반통일 세력과의 일대투쟁이 될 것이다.

바야흐로 이 땅에서 평화운동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는 7천만 민족의 염원을 부른 가슴으로 부여안고 세계평화애호인의 성원을 받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나아가 통일을 위한 반전반핵평화운동에 힘차게 나설 것을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1. 전쟁반대·핵반대 민족에게 통일을!
2. 민족생존 위협하는 핵무기를 철수하라!
3. 평화협정 체결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분단조국 통일염원 44년 8월 24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통일의 염원안고 나가자!
우리의 그림 들고 거리로!
거리로!

외세의 간섭과 조종으로 한민족의 순결함을 유린당한 분단 44년의 역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불멸더위를 가득 메웠던 지난 6월, 7월, 8월!

살인 최루탄과 백골단의 쇠파이프에도 굴하지 않고 끝내 하나가 되었던 장엄한 대열은 조국통일의 문제가 남북한, 해외동포 등 우리 7천만 한민족 모두의 대원임을 뼈저리게 확인시켰습니다. 또한 이제 더이상 통일논의는 광주의 대학살을 자행한 살인정권에게, 엄청난 부정비리를 자행하는 독재정권에게, 미국에 아부하며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 사대정권에게 맡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집권한 노태우정권은 88올림픽을 자기네들의 음모 속에서 분단을 영구화하고, 독재체제를 안정화 시키는데 이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핵무기 배치를 은폐한 채 대규모군사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재정권은 온갖 마스크와 대규모 문화·예술행사를 총동원하여 분단독재올림픽을 미화시키는 과대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민족의 현실과 민중들의 생존과는 거리가 먼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문화조작정책을 제도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인류의 대축제라고 한다면, 이번 올림픽은 마땅히 남북의 휴전 및 대치상황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 상호불가침과 공화공존으로 나아가는 공동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러한 열망을 외면한 채 반쪽올림픽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조국통일과 민족자주를 외치는 청년학생과 이땅의 민중들을 압살하고 있고, “통일 밥”이라는 연극공연마저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전후하여 88세계현대미술제를 비롯한 88올림픽문화예술축전이라는 것을 제도적인 보호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단현실과 민중들의 삶을 외면한 문화가 ‘민족문화’ 일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미술이 올림픽 문화의 하이라이트로 분단·독재올림픽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올림픽의 문화행사는 민족의 정서를 담은 진정한 '민족문화의 장'이어야 하고, 남·북한 문화·예술의 총화로써 한민족의 문화대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제반 올림픽 문화행사는 민중을 배반하고 통일염원을 왜곡시키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중적인 행사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우리 청년미술학도는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또한 민족분열자 노태우정권의 6·10, 8·15 남북학생회담에 대한 살인적인 탄압에 치떨리는 분노를 느끼며, 우리청년미술학도는 이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와 발맞추어 이

땅의 평화와 민주와 통일의 의지를 한데 모은 “통일염원미술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미술대학에서는 지난 6월 2일 “반민족적 88올림픽 미술제 저지를 위한 미술대학생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반통일적인 올림픽 미술행사를 반대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고, 이제 그것이 발전한 “서울, 경인지역 미술대학 학생회 연합 건설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일염원전”을 준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투박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우리 미술학도는 안정적이고 안일한 자기만족적 전시가 아니라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통일염원전”이 되기 위해 전시시간의 전부는 아니지만 거리로 나올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땅의 현실에서 문화·예술은 외세의 독재정권에 의해 심히 왜곡되어 있어 보다 진취적이고 과감한 실천을 우리 청년미술학도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땅의 모습과 우리의 의지를 담은 그림이 거리에서 전시되는 것은 분명 건강한 민족자주미술 건설의 과정이고, 올바른 미술의 실천이라 믿습니다.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애국시민, 청년학도 여러분! /

매국살인정권의 반통일적이고 반민중적인 문화·예술을 더이상 지켜보지 맙시다.

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한 마스크의 횡포를 과감히 거부합시다! /

최근 분단·독재올림픽의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온갖 허위적이고 최면술적인 문화·예술과 마스크의 작태에 엄중한 심판을 가하고 참다운 민족문화, 진정 민중이 주인되는 문화로 한민족의 순결함과 진취적 기상을 꽃피워 나갑시다! /

□ 우리의 주장 □

- 분단독재올림픽 들러리행사 올림픽미술제 거부한다! /
- 민중생존 외면하는 올림픽문화 반대한다! /
- 사대미술 척결하고 민족자주미술 건설하자! /
- 반민족적 문화정책 군부독재 타도하자! /
- 분단문화 척결하고 통일문화 앞당기자! /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4일

서울경인지역 미술대학학생회 연합건설 준비위원회

장기수용 정치범은 석방·귀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분단의 멍에를 쓰고 단지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년간 감방으로 보내져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당한 채 중세기의 야만적 인간 범죄행위의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민족, 형제들을 보면서 되돌이킬 수 없는 치욕의 역사를 반성하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다.

조국의 분단은 온 사회 곳곳의 발전을 저해하고 남과북의 형제가 서로를 적으로 내모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 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아픈 것은 민족이 서로 다른 사상으로 나뉘어 '사상이 다르다'는 핑계를 들어 인간으로서의 근본적 삶을 박탈하고 짐승과도 흡사한 삶을 꾸리도록 최악의 형벌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단 44년의 설움을 극복하고 민족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기운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이때 민족통일과 남과 북의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상범, 미전향수'라는 이유로 대전교도소, 청주감호소 등지에서 수십년간 짐승적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장기수용정치범들을 석방·귀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적 확신에 의해 행동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의 삶에 뿌리깊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 오직 하나, 사상만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사상의 차이는 그들 스스로 갈라 놓기 앞서 이 민족분열의 역사가 두개의 사상을 만든 것이었으며 이런 까닭에서 이들의 죄라면 오직 분단된 조국, 민족의 설움을 짊어져야 했다는 것이다.

분단된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완전히 자유를 박탈당한채 민족의 형벌을 대신하고 있는 이들은 이런 이유에서 정치적 확산범, 양심수의 범위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역사적 치욕, 민족의 아픔을 송두리채 씻기 위해서라도 모든 양심수에 앞서 이들 장기수용 정치범의 석방과 귀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사회안전법은 인간의 원천적 기본권을 말살하는 사상 최악법으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곳을 빠져나온 사람들로부터 청주 사회 인천감호소의 실상은 날날이 폭로 됐다. 자신의 형기를 마친 뒤에도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10년 20년의 억지 감옥생활을 하면서 대다수 60과 70이 넘는 고령의 몸으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니 21세기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사상에 대한 자유는 결코 억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이미 적절한 형벌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 거의 모두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어찌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기본권을 송두리채 빼앗고 그들을 짐승과도 같이 만드는 처벌을 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반인륜적 범죄행위 바로 그 자체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형벌을 감수하면서도 확신에 기초했던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단 한장의 문서, 전향서를 쓰기를 거부했을 뿐이다. 이 또한 이들이 정당한 양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보복적 범죄행위에 더이상 무릎 꿇을 수 없다. 민족분단의 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이들은 역사를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상의 자유는 모든 역사적 발전의 출발이요 기초다. 역사의 산증인으로 모든 사상의 자유, 사상의 권리를 온 몸으로 지켜온 이들은 즉각 석방·귀환 되어져야 한다. 그 길만이 역사의 죄가를 조금이나마 참회하는 길이다.

만일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20년, 30년 심지어 40년동안이나 외부와 격리된 채 독방속에 갇혀 지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씻고 남을 것이다. 살인을 한자도 20년이 지나면 용서받고 새 삶을 살 권리가 주어진다. 이들중 가장 적게 징역생활을 한 사람도 이미 20년을 다 지나고 있어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음에 사상의 자유는 오히려 지켜져야 하며 이같은 자유에 따라 이들의 석방·귀환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로 되는 것이다.

이미 사상의 성벽은 깨졌다. 또한 이들 장기수용들이 확신과 신념에 기초한 양심수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국판 '수용소군도', 현대판 '중세기 인간사육장'을 연상케하는 사회안전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조국분단, 사상분단의 멍에를 안고 있는 이들 장기수용정치범들은 즉각 석방·귀환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길만이 조국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기초를 세우는 길임을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결 의 문

- 광주학살의 원흉들은 반드시 처단되어야 한다 -

우리는 그날을 잊지않고 있다.

80년 5월, 2천여 부모형제, 우리의 동지들이 간악한 살인집단의 총칼아래 무참하고 처절하게 죽어갔던 10일간의 낮과 밤, 미처 날뛰며 광분하던 공수부대 놈들의 총칼 앞에서 우리의 형제들은 살기 위해서 총을 들었었다. 놈들의 심장을 겨누었던 총구와 굳게 다문 동지들의 입술, 그 해맑은 눈동자를 우리는 한시도 잊을 수 없다. 산새들마저 울부짖는 망월동에 아직도 부모형제를 찾지 못하고 이름없는 묘에 누워있는 무명열사의 한많은 통곡소리를 들어보라.

80년 5월, 살기 위해 총을 들고 싸웠던 우리를 폭도로 몰아세워 사형을 선고했던 놈들, 어용방송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을 유언비어로 몰아 붙였던 놈들, 지역감정때문이라면서 “전라도 놈들 독하다”고 주장했던 놈들, 그놈들은 지금 어디있는가.

광주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학살원흉을 처단하기 위해 우리는 8년간을 쉬지 않고 싸워 왔다. 우리의 부모형제를 무참히 난도질하여 살해했던 놈들을 처단하는 것만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믿으며 우리는 투쟁해 왔다. 이제 광주민중항쟁을 “폭도들의 반란”이나 “불순분자의 난동”으로 말하는 놈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우리들의 피맺힌 투쟁의 성과로써 국회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광주의 5월은 드디어 전 국민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똑똑히 간파하고 있다. 우리의 부모형제를 살해했던 가증스러운 광주학살의 주범 노태우, 전두환 집단과 미국, 그들은 이제 우리의 투쟁을 역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노태우, 전두환 집단과 미국은 우리들의 투쟁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국회라는 개량적 차원으로 얼렁뚱땅 끌어들이어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 회피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며 학살주범은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처단될 것이다. 우리는 광주학살진상을 백일하에 밝힐 것이며 학살원흉을 처단하는 투쟁에 온몸으로 나설 것이다.

광주학살의 원흉은 조국분단의 원흉이며 그들은 올림픽을 이용하여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려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동포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남북한 불가침선언,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등이 실질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 진정한 민족해방을 위한 대단결을 촉구해야 한다.

보라!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노점상을 양키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탄압하고 소위 “평화구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계엄아닌 계엄을 선포하여 민중의 생존권투쟁을 억압하는 저들의 간악한 본질을, 노태우, 전두환의 꼭두각시 윤길중, 김용갑의 망언을 보라. 저들은 절대로 순순히 물러나거나 반성할 집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더우기 김용갑의 강경발언에 몸을 도사리기 바쁜 제도정치권의 작태를 볼 때 그들이 얼마만치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인가를 입증케 한다. 군부독재가 민중운동세력과 보수정치집단을 갈라놓는데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군부독재와 미국을 타도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으며 도처에서 강력한 투쟁의 불길이 치솟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 8년간 우리들은 저들과 싸워왔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최루탄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지들이 폭력경찰의 고문과 폭력에 시달려 왔던가. 그러나 결국 저들은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을 막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폭도가 아니다.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학살원흉 처단은 이제 광주, 전남 민중만의 과제가 아니며 한반도 전체 민중, 그리고 세계민중의 과제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우리는 한발 한발 승리해가고 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광주학살의 원흉, 조국분단의 원흉, 민중생존을 억압하고 죽음으

로 내모는 원흉을 처단하기 위한 투쟁에 온몸을 바칠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 광주학살은 보상과 사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민중의 힘으로 학살주범 처단하자! /
- 광주학살의 주범은 조국분단의 원흉이며 민중을 억압, 수탈, 착취하는 민중탄압의 원흉인 미국과 노태우, 전두환 집단이다. 학살원흉 처단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
- 광주, 전남 애국민중이며, 한반도와 세계의 민중이며! /
미국과 노태우, 전두환 집단의 처단을 위해 단결하여 투쟁하자! /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5일

광주·전남 민중운동 협의회 (56-5525)
민주쟁취 국민운동 전남본부 (222-0047)
오 월 운 동 협 의 회 (55-5295)
전남지역 대학생대표자 협의회 (55-1633)

광주학살 진상규명 · 학살책임자 처단하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추진본부는 오늘 저 위대한 80년 5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학살원흉들을 응징하는 결의를 함께하는 자리를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 고자 한다.

지난 8년간의 줄기찬 투쟁결과 이제 광주는 광주시민만의 광주가 아니요 민주화민족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한국인, 나아가 세계인의 광주임을 우리는 선언한다.

오늘의 작은 성과는 먼저 8년전 5월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결연한 투쟁을 하다 산화한 민주영령들에게 바쳐져야 한다.

허나 나라 안이 온통 올림픽 축제로 들떠있는 이 현실은 어떠한가. 1천여명이 넘는 양심수가 지금도 독재정권에 의해 갇혀있으며 올림픽 미관을 위해 도시영세민의 생존권이 탄압되고 공동올림픽 성사를 위한 모든 노력 역시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영령들이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자 처벌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진상규명조차 독재정권의 김빠기, 시간끌기 술책에 의해 흐지부지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진정한 국민화해의 전제가 되어야 할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

별, 또한 저 학살과 온갖 부정비리의 원흉 전두환, 이순자 부부의 구속없이 자행되는 최대의 올림픽 사기극은 단연코 거부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최소한의 국민적 염원마저 외면한채 준계엄법인 소위 올림픽을 지키기 위한 법들이니 평화구역 선포니하며 나라안을 온통 공포분위기로 만든채 민주인사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현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서울 올림픽을 진정한 평화제전, 민족화해의 장으로 맞이하려면 이제라도 구태의연한 작태를 중단하고 국민적인 단합과 화해를 실현시키기 위한 남득할만한 조치를 단행하라.

무엇보다 광주 항쟁 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올림픽 개최 이전에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최대의 사기극을 계속할 때 전민주역량을 결집, 우리는 강력한 규탄과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학살원흉을 민중의 심판대에!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결의문

- 굳센 단결투쟁으로 평화와 통일의 서광을 안아오자! -

한맺힌 조국분단 44년의 역사를 매듭짓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핵전쟁의 참화에서 조국의 운명을 구하려는 장중한 투쟁의 불길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며, 한 핏줄 한 민족의 순결한 전통을 자랑스럽게 지켜온 우리 민족은 외래 침략자 미국이 성스런 조국강토에 통한의 철책선을 설치한 이후 자주와 통일을 향한 애국적 투쟁을 단 하루도 멈춘적이 없다. 미국과 매국집단의 탄압의 칼날이 아무리 드세어도 애국에 투철한 우리민중은 고귀한 한 몸을 던져 뜨거운 선혈로 이 민족의 억압굴레와 분노의 철책선을 붉게 물들였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를 열며 평화와 통일을 향한 거족적 투쟁의 광장에 찬연한 진군의 깃발을 드높이 치켜들고자 한다.

지금, 조국강토의 남단에서는 분단에 살고 통일에 죽는 미국과 매국집단의 망국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드세어져 가고 있다.

매국집단의 군비강화와 군사훈련이 나날이 증대하여 조국의 운명을 극한의 위기에 몰아 넣고 있다. 천여기의 핵무기도 모자라 최신예 공격전투기 F16기를 대량으로 반입하고, 올림픽을 빌미로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민의를 뒤집고 부정, 협잡으로 등장한 노태우 매국정권은 민족의 통일축제가 될 공동올림픽을 한사코 거부하고 망국분단의 단독올림픽을 강행하려 하는 한편,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애국민중의 투쟁을 협박과 기만으로 꺾으려 하고 있다.

망국적 단독올림픽을 통해 조국의 분단상태를 영구화하고, 매국독재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노태우 군사집단은 기만적인 7.7선언을 하는 한편, 강화된 반복한 대결의식 조장과 반평화 긴장고조 책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소위 평화 입법으로 무차별 탄압하고, 5공비리와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주범처단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사람의 정당한 댓가와 권리를 찾고자하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투쟁을 무참히 짓밟고 있으며, 외래자본과 매관제벌의 부의 횡포에 거리로 쫓겨난 도시빈민과 노점상들의 생계를 이룬바 올림픽 미관을 이유로 여지없이 탄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 반민주악법을 그대로 유지, 온존시킨 채 정권기관의 폭력적 물리력으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종교인, 재야 양심세력의 투쟁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과 매국집단의 매국배족적 망동이 더욱 기세를 올리는 엄중한 시국에 직면하여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를 통해 다음의 투쟁과업을 굳게 결의하는 바이다.

1. 조국의 자주, 민주를 짓밟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바로 미국과 노태우 매국정권을 직시하고, 이민족 미국과 매국배족적 노태우 군사정권을 몰아내는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1. 휴전협정은 전쟁의 위험과 공포를 더해주고, 조국분단의 늪을 깊게하는 근본원인이다. 우리는 이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1. 평화협정체결의 정신위에서 남북한 상호 불가침선언과 무력 감축협상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1. 언제 민족을 절멸시킬지 모르는 남한의 미국 핵무기는 즉각 철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비핵법안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을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1. 조국분단 44년동안의 동족간의 반목과 불신을 없애고 민족의 대단합을 이루게 하는 남북간 각계각층의 자주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 실현시켜야 한다.
1. 금번 24차 올림픽이 망국적 독재분단올림픽으로 열리는데 대해 단독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 투쟁하며, 단독올림픽의 긴장과 분단의 기운을 평화와 통일의 새 기운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1.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애국적 운동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 제반 악법을 제거하기 위해 투쟁한다.

1. 5공비리,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주범처단을 위한 의로운 투쟁은 올림픽을 이유로 한시도 지체될 수 없는 바,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1.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의롭게 싸우다 갇힌 애국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과업은 조국과 민중이 우리 애국대오에 부여하는 현 시기의 영광스런 임무이며, 한시도 늦출 수 없는 화급한 과업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은 외래 침략세력에 맞서는 전 민족의 구국투쟁이다. 이 투쟁의 대업은 전 애국세력의 총단결로서만 완수할 수 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 너와 내가 다를 수 없고 각당 각파가 따로일 수 없다.

7천만 애국애족 동포 형제여!

분단과 독재의 광풍이 드세게 휘몰아치는 오늘, 전쟁과 분단의 오랜 고통을 벗어던지고, 평화와 통일의 서광을 안아오기 위한 단결투쟁에 하나되어 나서자!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7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7·8월 대투쟁의 의의와 세계대회를 맞는 노동자들의 결의

노동자 동지여러분!

7·8월 노동자 대파업의 일어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년전 그 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7·8월 투쟁은 노동자들이 역사의 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장에서 민주노조쟁취, 임금인상의 함성이 터져나와, 신문은 파업투쟁 소식으로 뒤덮혔습니다. 자본가와 군부독재는 당황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하기에 바빴습니다. 보수야당까지도 터져나오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놀라 멍청하게 쳐다보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침내 노동자계급은 당당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고, 노동해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왜곡보도를 일삼고, 독점자본가와 군부독재는 국무회의까지 소집하여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석규열사가 살해되고, 수많은 노동자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탄압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이제까지 침묵을 지키던 대기업 노동자들이 독점자본가와 군부독재정권과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가족들까지 참여하고, 각 도시, 각 업종, 각계 열사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떨쳐 일어나 노동자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 결과 1,500여개의 신

규노조가 탄생되었고 수많은 노동자 대중은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전태일 선배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일 것입니다.

노동자 동지여러분!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은 적의 탄압과 선거열풍으로 잠시 묻혔지만,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10월에는 통일산업 노동자들의 구속자 석방 투쟁을 계기로 노동운동 탄압분쇄투쟁을 벌여 노동자들의 단결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 직후에는 맥스텍사사 위장폐업 반대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전민주세력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후 현대엔진 노조 사수투쟁과정에서 전국 10여개의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전국노동운동 단체협의회 결성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임금인상 투쟁에서, 수많은 노조들이 계획된 임무를 벌여 조직을 강화시켰으며, 지역노조협의회라는 연대의 구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사대와 공권력의 도발을 연대투쟁으로 물리쳤습니다. 마산·창원지역에서는 끈질기고, 강력한 투쟁으로 마·창노련의장을 석방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노동자들은 쉬지 않고 투쟁의 깃발을 휘날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7·8월 투쟁의 정점에서 자행된 자본가와 군부독재의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철도노동자 파업 등 공권력과 독점자본이 합작하여 가해오는 탄압에 속수무책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노조도 많으며, 공권력의 탄압분쇄를 위한 연대투쟁, 구속자석방투쟁 등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는 노동자들의 숫자도 적습니다.

노동자 동지여러분!

우리는 7·8월 투쟁 1주년을 맞아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노동해방의 그날을 향해 진군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내부를 강화해 나갑시다. 독점재벌과 공권력의 탄압을 뚫고 전진할 수 있도록 노조협의회 등 연대의 구실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갑시다.

생존권 투쟁, 조직수호투쟁을 바탕으로, 노동법개정투쟁, 전두환·노태우 처단투쟁, 조국통일 촉진투쟁들의 정치적인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섭시다. 그리하여 노동자가 실질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정치적인 문제가 노동자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인 문제의 부담은 결국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허리가 두 동강이 나 있음으로 인해, 우리 노동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투쟁조차 좌경용공으로 몰아붙여 탄압하고, 노동자들이 피땀흘려 생산하는 부가 1년에 한 가구당 200만원이상의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아무리 피땀흘려 일해도 저임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정착된다면, 반공 이데올로기

를 이용한 탄압도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노력의 댓가가 쓸데없는 데로 빠지지 않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를 맞이하여,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8·15 학생회담을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이 통일선봉대와 참관인단으로 참여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어찌 학생들의 힘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일천만 노동자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이 대회에 참석하는 노동자는 적다 하더라도 이 대회가 일천만 노동자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떨쳐 일어나게 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군부독재정권은 반쪽 올림픽을 치루면서 한반도의 허리를 영원히 잘라 놓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의 허리를 잇고, 노동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8일

서울지역 노동운동단체 협의회

한 반 도 평 화 선 언

무릇 가리워진 진실은 드러날 수 밖에 없고, 굴절된 역사는 바로 잡혀질 수 밖에 없다. 공존과 공영의 인류사적 진실에 반하여 억압과 예측의 굴레를 씌워 오던 욕된 역사는 이제 도도한 민중의 물살에 밀려나고 있다. 전세계 민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냉전상태와 그것에서 비롯된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에 의해 강요된 냉전논리로 제 3세계 국가의 민족적 자주성이 훼손되고 생존마저 위협받는 반평화구조가 자리잡게 되었다. 강대국이 지구촌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파괴 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인류공동체는 구조적 폭력에 의해 유린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본성에 기초한 가치와 질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중단될 수 없었으며, 바야흐로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냉전의 세계사적 모순이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서로 다른 체제가 들어서서 군사적 긴장속에서 대치하는 민족사적 비극이 44년 간이나 계속되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지배세력의 파행적 전횡으로 계급적 모순이 함께 맞물리면서 국민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모순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은 셀 수도 없는 인명피해, 줄을 잇는 투옥 등의 쓰라린 희생속에서도 줄

기차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땅의 폭력구조를 평화구조로 기어이 전환시키고야 말 것이다. 강대국에 의한 자주성의 유린,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라는 역사적 절곡은 위대한 국민의 힘에 의해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어둠이 빛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땅의 평화정착은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에 기초할 때에만 더욱 빠르고 굳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억압과 예측을 없애고 평등과 해방을 지향하는 인류이상의 좌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국민의 지혜와 용기를 한 데 모아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또한 지구상의 한 지역의 모순은 국제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제평화세력과의 연대 속에서 성스러운 역사적 소명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준전시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중의 하나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세계평화구축에 중요한 몫을 담당할 것임을 굳게 믿는다.

이에 우리의 실천을 약속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절박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1. 휴전협정은 남북상호 불가침선언에 기초하여 평화협정으로 대치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전제로 1953년에 미국, 중국, 북한간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이미 그 정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하였고, 오직 우리 민족에게 준전시상태가 강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남한사회의 민주화는 원천봉쇄되고, 민족경제는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당사자간의 제도적 확인장치로서 상호불가침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초로 휴전협정은 파기되고 휴전협정 당사자간에 평화협정이 새롭게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의 억지를 위한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 지배의 군사적 도구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20억불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조차 우리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 상황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분단과 긴장의 주요인으로 역전된 상태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여부가 한민족 전체의 총화된 의지의 결집과정을 통해 새롭게 결정되어야 하며, 합당한 절차를 거쳐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3. 한반도의 핵무기는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한반도는 비핵지대로 되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의 65% 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은 이미 핵의 기능이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으로 보다는 대소 공격용으로 재배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1983년 미국의 세계전략이 동시다발 전략으로 전화된 상태에서 이미 한반도는 세계 제일의 화약고로 등장하였다.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 핵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핵무기는 즉각 폐

기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천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동북아시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화선언은 강대국의 제 3세계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은 저지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며 북서 태평양지대의 비핵지대화운동에 전환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남북한 상호간의 감군과 군축을 위한 협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군비확장은 민족내부의 주체적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대국의 군사전략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 책임주체인 남북 당사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노력의 반영으로서 감군과 군축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여야 한다.

5. 남북민중간의 자주적 교류와 평화통일 의지의 확인과정은 다원화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족의 의지를 바탕으로 자주적 교류가 시행되는 것이 평화적 통일의 선결요건이다. 우리는 남한 군사정권이 남북교류를 전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단언하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실질적 주체로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 제 24 차 올림픽은 국민내부의 화해와 민족대단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인류의 평화제전인 올림픽이 한 정권의 유지와 강화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민족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올림픽 본래의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최국이 우선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이땅에서 심화되어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계엄상태를 방불케 하는 공포 분위기의 조성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역대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하게 될 서울 올림픽이 인류평화뿐 아니라 한민족에게는 민족대단합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럴 경우에 형성되는 민족적 자긍심은 민족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

평화는 억압과 예측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실천적 과정이며 또한 그 목표이다. 따라서 평화를 향한 우리민족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이를 막는 폭력과 억압을 뚫고 나감으로써 민족사에 일대 진보를 가져올 것이며, 세계평화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행진을 부단하게 이어갈 것이라는 결의를 전 세계 평화세력과 선배 열사의 영전에서 거듭 확인하고 천명하는 바이다.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천만 해외동포에게 드리는 두번째 글

조국통일 만세!!!

보고싶은 형제, 자매, 천만 해외동포 여러분!

오직 애국의 뜨거운 마음으로 허리 잘린 조국의 하나됨을 위해 싸워오신 동포여러분께 조국으로부터의 두번째 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3일부터 이곳 서울에서 거행되었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우리 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전 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며 열렸던 이번 대회는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향과 노력을 만방에 과시한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도덕한 남한의 군사정권이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와 해외참가자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출국 조치로 극심한 탄압을 가해왔지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를 가로막을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각계 각층 애국민중들의 단결된 대오와, 세계 곳곳에서 도착한 뜨거운 연대의 매세지, 특히 같은 동포, 한민족인 여러분들로부터 날아온 감격의 연대사는 이번 대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해외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번 세계대회가 핵전쟁의 위기에 서있는 조국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활짝 피우고, 분단의 고통에 일그러진 민족의 가슴에 통일의 새물결을 넘쳐 흐르게 하는 조그만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요하게 확인된 평화협정 체결과 불가침선언의 채택,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의 내용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전 민족적 과업이자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것은 7천만 한민족과 전세계 평화애호인의 흔들릴 수 없는 결의로 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형제, 자매여!!

이제 저희 남쪽의 형제들은 세계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올림픽 기간중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범민족대회는 남북의 6천만 동포와 해외 천만동포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민족화해와 조국통일의 신기원을 열어나가기 위한 대동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대회는 7천만 동포의 뼈아픈 이별의 한을 말끔히 걷어내고,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와 핵무기의 공포를 몰아내고, 민족자주성에 입각한 조국통일의 옳은 방도를 내기 위한 전민족적 결의와 실천의 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분단을 영구화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진정한 민족적 통일외지가 무엇인가를 천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9월의 범민족대회가 7천만 한민족이 평화와 통일의 새물결로 굽이쳐 흘러 백두와 한라를 끝

내 하나로 잇는 중대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해외동포 여러분을 서울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땅 한반도, 조국의 수려한 강토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서 확인합니다. 통일조국의 영광된 새날을!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우리의 조국은 하나입니다.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민중들에게 드리는 글

세계의 평화와 진보를 갈망하는 세계의 50억 평화애호인 여러분!

마침내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7천만 겨레의 염원과 한결같은 세계평화애호 세력의 뜻을 이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미 평화는 시대적 요청이자 역사적 요청으로 되고 있고, 이제는 인류의 생존의 문제로 전세계의 민주 세력의 절박한 요구에 기초한 각국의 반전반핵운동, 민주운동세력들의 뜨거운 의지와 격려성원에 의해 이룩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반평화적인 긴장분위기가 고양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조국 한반도는 일본제국주의하에서 해방되지 못한 가운데 또 다시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미제국주의의 대소 전진기지로서 더우기 독점이윤확보의 수탈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가공할 핵무기가 1,000여기에 달하고 있고 계속되는 미국·일본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연일 벌어지는 등 한민족의 운명은 파멸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편 민족의 영구분단을 꾀하여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하는 제국주의 세력은 88서울 올림픽을 통해 분단을 고착화시켜 두 개의 한국을 영구히 조작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군부독재자의 영구집권과 독재연장의 음모에 맞물려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깃뚫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반통일적 음모에도 불구하고 갈라진 강토를 하나로 잇고 분단된 조국을 합치고자 하는 7천만 겨레의 통일열기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습니다. 한반도를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해방시키고 남북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구조를 평화구조로 바꾸어 평화통일을 앞당기려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은 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할 시대적 애국적 추세입니다.

세계대회에 참여한 해외평화운동가들의 강제출국, 연행, 집회의 원천봉쇄 등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세계대회를 통하여 세계의 민주인사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

의 절박성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평화애호인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세계평화의 열쇠는 한반도가 핵이 없는 땅이 되어야 하고 불완전한 휴전상태가 아닌 상호불가침선언을 기초로 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군은 즉각 철수되어야 한다는 범국민적인 결의를 모았습니다. 평화를 옹호하고 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나가는 세계의 동지들이여!

한반도의 처절한 외침은 세계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쟁의 배후조정자, 미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이들의 정치,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는 제3세계의 가장 구체적인 땅의 목소리이며 한반도의 해방과 평화통일은 침묵속에서 묻혀만 왔던 전세계 민중들의 등불로 세계평화를 실제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몸은 이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지만 세계각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세계민중들의 투쟁에 세계 반제전선의 한길에 서서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진보를 확신하여 이땅 조국 한반도의 해방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모든 민중형제들이 어깨걸고 해방의 나라를 펼칠 날을 기대하며 ……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세계대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 땅의 국민들과 UN까지도 포함한 세계평화세력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속에서, 전쟁과 핵의 위기에 처한 분단조국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를 열었다. ‘세계대회’를 마치고 9월의 ‘범민족대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평화구역’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대중적 합의내지 논의없는 ‘평화’란 허구일 수 밖에 없으며 교묘한 거짓일 뿐이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이, 생업을 빼앗긴 노점상들의 피어린 외침이, 살림터를 잃어버린 철거민들의 피맺힌 항의가, 소위 ‘평화’란 이름으로 봉쇄되고 탄압을 받을 때 그들이 대안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될지 정부당국은 심각히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대중들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은 결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세계대회'에 대한 야만적 탄압행위에 대해 즉각 공개사과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평화의 법'과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 불법연행, 구금 등의 탄압을 자행하였으며, 심지어는 해외평화 애호인사들과 함께 분단조국의 현실을 절감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진각에서의 '통일기원 대동극'을 폭력차단하고 대학로에서의 '통일염원 거리 미술전'에서 100여점의 작품을 파손하고 20여명의 미술학도들을 구타 연행하는 등 '관혼상제 및 학술·문화예술행사'는 가능하다는 소위 평화의 법을 스스로 어겨가면서까지 탄압하였던 것이다.

셋째,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해외평화애호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세계대회'를 위해 우리가 초청한 해외평화 애호인사들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은 미행 감시, 연행, 구금, 강제출국등 낮 부끄러운 만행을 스스로없이 자행하였으며 행사를 마치고 출국하려는 해외인사들에 대해서까지도 숙소 및 공항에서의 강제연행, 조사, 강제출국등의 만행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올림픽 만능주의를 대중적으로 유도시키면서 '평화의법'과 폭력경찰을 동원하여 제반 민주민권과 정당한 평화적행사를 무리하게 탄압하는 것이 올림픽이후 내적으로 군부독재체제를 강화시키고, 해외적으로 교차승인, 유엔동시가입 등을 통한 조국분단을 영구화시키고자하는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우리는 국민에게 약속한 '범민족대회'를 전국민의 뜻과 힘을 모아 개최할 것을 다시 약속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9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공동대회장
문익환·계훈제·박형규·강석주·이소선

범민족대회 선포문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전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조류가 되고 있습니다. 무차별한 최루탄 난사와 야만적 폭행도 통일에 대한 청년학생의 열정을 수그러뜨릴 수 없었으며, I.O.C. 현장운운하며 올림픽의 공동주최는 절대 불가능하다던 독재정권도 공동올림픽 성사를 위한 열화와 같은 민족대단결의 불꽃을 결코 식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터져

오르는 조국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결같은 노력을 체제전복의 움직임이라느니, 극좌세력의 준동이니 애도하면서 올림픽을 통해 분단체제를 영구화하고 독재권력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대매국세력의 움직임은 외래침략세력의 요구일 뿐,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완전히 무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킬 실질적 조치인 평화협정의 체결과 남북불가침선언이요. 이 땅에서 핵참화의 위험을 깨끗이 제거하여 통일을 위해 남북한이 손을 굳게 잡고 힘차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비리와 민중학살의 주범에 대한 처벌의 지연, 민중의 생존을 외면한 '평화구역의 선포'는 국민적 요구와는 정반대인 것이며, 인류화합과 세계평화의 올림픽 정신은 자주, 민주,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정권의 폭력적 방해를 뚫고 진행된 세계대회의 교훈이요,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해 전민족의 하나와 같은 뜻과 힘을 모아 9월 21일에서 23일까지 남과 북, 해외 동포가 망라된 7천만 우리민족의 '범민족대회' 개최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범민족대회'는 올 88년을 조국통일의 신기원을 여는 한해로 창조해 낼 민족의 동불이 될 것이며, 통일의 주인은 7천만 우리 민족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역사적인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 대회에 가해진 외세와 사대매국 세력의 그 어떤 방해책동도 전민족적 항거에 의해 좌절될 것임을 경고하며, 범민족 대회를 7천만 전민족의 대동제로 만들기 위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애국시민등 모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믿어마지 않습니다.

조국통일 만세 !!

민족대단결 만세 !!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3월 2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세계대회 참가 외국인들의 항의 성명서

우리 외국인 참가단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평화대회에 평화의 뜻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이 대회가 올림픽 전 예비행사라고 알고 있었고 한국인들의 호의적 환대를 받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시종일관 끊임없는 정권측의 방해에 시달려야만 하였다. 수배중인 범죄자 처럼 심지어는 쇼핑을 갈때도 미행을 당했으며 저녁식사도 예약된 장소들도 또한 취소되었다. 더더욱 모든 방문객들이 즐겨찾는 유적지를 방문하려던 우리의 계획마저도 취소되어야만 하였다.

몇사람은 공공연히 심문을 받았고 또 참가단 몇명은 고국으로 돌아가기전 구속과 감금을 치루어야만 하였다. 어떤 참가자들은 구속영장도 없이 대낮에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머지 참가단들도 강제출국을 모면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대우에 분노와 항의를 표하는 바이며 또한 이는 모든 국가가 외국인 손님들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할 예의범절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올림픽이 상징하는 국제친목과 평화 유대를 위반하는 행위였으므로 더욱더 유감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인권침해와 폭행을 즉시 중단하기를 요구하며 U·N과 International Amnesty와 세계국가들이 이에 맞서 타당한 조치를 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의 한국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올림픽이 추구하는 국제우호관계와 세계평화에 어긋나는 행위였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다.

분단조국통일염원 44년 8월 29일

세계대회참가 외국인 일동



해외동포 및 해외반전반핵 평화운동단체들로 부터 온 연대지지 message

미국 가톨릭주교 “토마스”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보내는 지지문

1988. 7.26

나는 카톨릭 주교로서, 관심있는 미국시민으로, 평화운동가로서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평화대회를 조직하는 여러분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40년 넘게 갈라져 살아온 남한 국민이 민족을 다시 통일하려는 요구들은 반드시 표출되어야만 합니다.

핵으로부터 해방된 한국을 위한 남한국민의 열망과 그들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에 대한 열망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원해야 할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역사적 대회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는 정신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통일과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여러분의 목표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대회에서 제기되는 요구들을 미국내에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카톨릭주교 Thomas J. Gumbleton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의원 “조 발렌타인”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보내는 지지 연대문

1988. 8.10

세계대회를 주최하는 동지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반도로부터 핵무기를 철거시키려는 여러분의 투쟁은 민주주의와 자주적국가주권 등의 궁극적 문제와 직결된 것입니다. 이제 지구촌의 인류는 핵무력을 앞장세운 강대국의 침략에 항거해서 국제연대운동의 투쟁을 드높여야 하며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비핵화를 쟁취하기 위해 혼신으로 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연대합시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의원 Jo Vallentine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보내는 연대사

1988. 8.14

우리 조국 금수강산을 뒤덮고 있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숲!

끝없이 계속되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제한 군비증강으로 인해 공포의 전쟁전야로 뒤바뀌고 있는 한반도!

전후 35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남북간의 무모한 정치, 군사적 대결을 강요하는 원한의 휴전선!

• 오늘 우리 겨레의 운명은 주한 미군에 의한 핵전쟁의 폭발점으로 시시각각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군사적 긴장의 첨예한 발끝을 우리 겨레의 심장에 들이대며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긴박한 군사적 위기의 절정에 몰려서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숭한 외래침략전쟁의 불길 이 휘몰아쳤으나 오늘날처럼 전 민족의 생존이 핵전쟁의 불폭풍 앞에 위협받았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침탈을 강화·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인 주한미군을 우리 강토에 장기적으로 주둔시켜 역대의 군사독재정권을 창출·육성해왔고 분단을 영구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과 주한미군은 곧 분단과 예측의 실체이며, 6천만 겨레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평화파괴의 주범이며, 자족적 평화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전진을 극력 방해하는 분단원흉입니다.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평화와 통일은 추상명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 겨레가 피땀흘려 실현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며, 민중의 단합된 힘으로 수행해야 할 최대의 임무이며, 민족사의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선열들은 자주와 평화와 통일이 완전히 실현된 조국을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 피흘려 싸웠습니다. 그 위대한 구국투쟁의 열기는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의 의지와 염원은 무엇이며, 피땀어린 노력과 투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6천만 조국동포의 몸부림이요, 4백만 해외동포의 아우성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의 격화를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국 분단장벽을 뚫고 나가는 돌파구입니다. 그것은 조국의 자족적 평화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의 성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없는 통일을 생각할 수 없으며,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평화는 그 진정한 실체를 얻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한반도는 인류과멸을 예고하는 핵전쟁의 도화선이 도사리고 있는 준전시 지역이며, 동시에 장차 평화정착의 새 역사를 열어놓는 세계평화의 심장부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빼놓고 세계평화를 말하는 것은 핵심을 잃어버린 공허한 논의가 되기 때문이며, 우리 강토에서 주한미군과 핵무기와 휴전선이 없어지고 평화통일이 실현되지 않으면 국제적 반핵평화운동은 한치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반핵 평화운동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성원을 보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과 노태우정권이 분단올림픽을 강행하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가일층 고조시키고 있는 이 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에서 살면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해외동포인 우리는 이번 대회가 현재 나라 안팎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구국통일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깊은 연대의 뜻을 표하며 열렬한 지지를 보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조국의 숭통을 최고 있는 저주스런 전쟁위기와 분단체제를 끝장내고 자족적 평화통일의 앞길을 밝히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조국의 자족적 평화통일을 위한 해외동포의 연대투쟁 만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연대한 세계의 진보적 양심세력 만세!

8.15 남북청년학생회담 성공 및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대회참가자 일동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보내는 연대문

1988. 8.15

이번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유엔사무총장을 초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유엔창설 초기부터 주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대회 소식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큰 격려와 고무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여러 국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치 못하게 된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엔을 대표하여 이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주최측과 참가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연대를 보내는 바이며 이러한 뜻이 여러분의 대회과정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대회가 성공리에 끝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유엔 파견 각국 대표단 운영위원장 **John L. Washburn**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사무총장 ‘에디스 발렌타인’ (스위스 제네바)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보내는 연대문

1988. 8.19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의”의 이름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시도된 모든 노력들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와 군사전략상의 이유로 인위적으로 강요된 민족분단에 의해서 가족과 친지들이 44년동안이나 떨어져 살아왔다고 하는 한반도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되고 비핵지대가 되며 비동맹중립국가로 되어진다고할 때 첨예한 군사적 긴장으로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는 태평양 지역을 평화지대로 새롭게 정착시키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세계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성공적 결실을 맺기 바라며 대회폐막뒤에 대회와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평화와 정의 그리고 핵과 폭력으로부터 자유한 세계를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들의 공동투쟁에서 더욱 강고한 연대가 형성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국제연맹

사무총장 **Edith Ballantyne**

스위스제네바

미국사해동포위원회 (웨이커)의 성명서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부쳐 -

1988. 8.21

미국사해동포위원회의 집행부와 임원을 대신하여,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평화·정의·화해라는 대원칙은 당연한 과제이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려져 왔습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확고한 노력들이 있을 때, 평화와 통일은 우리 자신의 시대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의 열망을 대신해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국 사해동포위원회는 1917년 이래로 초기 웨이커교도들에 의해 제안된 “만인앞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대답하라...”를 실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응전하면서 또한 우리는 전쟁과 갈등이라는 많은 우상들에 휩싸여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불신과 갈등의 장벽을 넘어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고 평화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갈라진 공동체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양심의 단결을...” 역설한 마틴 루터 목사의 절규에 감명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북미, 중동, 남아프리카, 중미에서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역시 한반도에서도 시대적 요청으로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부가 종종 그리고 고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구축에 역행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측의 그러한 정책에 도전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국에 관한 관심을 추구함에 있어, 미국에서의 활발하고 효과적인 평화운동의 구축에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란 군축뿐만 아니라 무기의 부재(不在) 그 이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목사도 “평화란 단순한 무기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정의와 형제애가 발현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듯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그것으로 인해 자행되는 비리를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흑인, 라틴족, 아시안계통 미국인, 아랍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앵글로족들과 함께 연합함으로써 분열된 공동체의 간격을 좁히기를 원하며, 그것은 곧 모든 사람의 제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축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군축운동의 대중적 전개와 아울러 핵무기의 현대화를 종식시켜 나가야 되리라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는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간섭이 끝나도록 외국무기와 외국군이 그들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을 위해 일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함에 따라 심각하고 많은 도전들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80년대에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그리고 또다른 세기에 접어들면서 모든 민족의 자치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양심들이 전세계적으로 모아지는 공동체에 의해 우리의 희망들이 실천적으로 모아질 때 평화와 화해는 진척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총무 Asiz Bennet -

독일 연방공화국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보내는 메시지

1988. 8.23

먼저 우리는 직접 세계대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독 평화운동 운영위원회의 이름으로 한반도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외세에 의한 전쟁준비를 고발하고 침여화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차대전 이후 최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우리는 외국군에 의해 점령당한 채 핵무기로 가득찬 분단된 땅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독일이 평화스러운 유럽 공동체로 통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의 세계대회가 성공리에 치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대회 후에 대회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서독의 평화운동과 한국의 평화운동체 사이의 연대가 강화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독 평화운동본부 운영위원회
대변인 Gerd Greune Bonn 으로부터

재미 “엘살바도르 민중과의 연대를 위한 위원회” 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에 보내는 지지 연대문

1988. 8.24

엘살바도르 민중과의 연대를 위한 위원회를 대신하여 우리는 한국국민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관계자 모두에게 깊은 연대의 뜻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세계대회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계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쉬움이 있으나 우리는 한겨레 미주홍보원(워싱턴 D.C 소재)과 접촉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하여 회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계대회는 세계의 이목이 서울로 집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열립니다.

1988. 8.15. 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머릿기사로 “서울경찰 공권력으로 집회봉쇄: 판문점으로의 행진 전날에 들끓은 열기를 봉쇄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하고 북한의 동포를 만나기 위한 8.15 학생회담을 저지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민중들의 정신과 의지는 강하고 점차 조직화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 자결을 쟁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투쟁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민중의 투쟁은 미국의 냉전정책에 희생당해 온 전세계 민중투쟁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엘살바도르 민중과 연대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엘살바도르 및 중미 개입에 항의하면서 우리는 민중들의 해방투쟁은 총이나 최루탄 혹은 핵무기로 저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아 민중처럼 한국민중은 자주와 자결,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적 한국국민에게 경의를 표하며 냉전논리를 극복하여 진정한 인간성의 교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의 대열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남한에 대한 개입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미핵무기와 함께 핵무기 발사대 그리고 미군의 철수를 아울러 촉구합니다.

한반도 민중의 투쟁이여 영원하라!

단결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Committee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El Salvador
전국의장 : **Angela Sanbrano**

찰스 샐러너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참석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1988. 8.25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기간 동안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번의 세계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곳에 남은 다른 해외 참가자들이 끝까지 무사히 대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저희들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들이 이번의 대회로 인하여 한국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만약에 저희들이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곧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김포공항 근처에서 하루저녁과 만나질 동안을 억류 당한 뒤, 지난 8월 22일 5시 30분 노스웨스트 항공편으로 강제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에 도착한 이후부터 저희들은 한국정부에 의한 저희들의 강제추방소식을 가능한 한 모든 매스컴을 통해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세계대회에서 국제반전반핵 평화운동과 한국에서의 반전반핵 평화운동간의 연대에 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불행히도, 제가 직접 대회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나마 제 입장을 써 보내어 연대의 정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연세대에서 있었던 8.15 남북 학생회담 출정식에의 참석을 이유로 한 저희들의 강제추방은 아마도 저희들이 직접 대회에 참석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노력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곳에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우나 다음의 생각들을 글로써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추방은 바로 노태우 정권이 이번 세계대회의 중요성과 그것이 미칠 국내외적인 여파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여러분의 세계대회가 시간적으로나 그 역사적 의미상으로나 그리고 이 대회가 국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의 파급효과에 있어서 옳은 시도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반도에서의 반전반핵 평화운동 및 민족해방운동이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대중들에게 연결되게 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우리들 공동의 견해는 이번의 세계대회를 통하여 다시 확인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세계의 반전반핵 평화운동체들이 한반도의 핵위기 상황 및 분단비극에 대해서도 새롭고 진지한 관심과 노력들이 시작되고 개발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이번의 대회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세력들의 전세계에 대한 군사 지배, 신식민지 지배를 통한 착취, 핵위협을 앞세운 국제테러, 제3세계에서의 민족자주해방 운동을 저지키 위한 침략정책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평화대중의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그리고 전세계 민중에 의한 국제연대운동이 미국 및 일본 그리고 여러 다른 자본주의 경제대국들에 의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지배로부터 세계 모든 민중들을 해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한 민족적 노력을 자주적으로 펼쳐나갈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의 노력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온 세계를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 노력들은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의식주 문제와 직업보장 및 교육·의료혜택 등의 문제를 우선시켜야 하는 책임도 포함합니다. 모든 인간은 외세에 의한 정치·경제적 지배로부터 그리고 자국의 지배계급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정보교환 및 여행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인종차별, 성적차별, 한 민족의 타민족에 대한 정치적 탄압 및 압박으로부터 해방되어야만 합니다.

위에서 거론한 인간의 제반 기본권 외에도 한국인들은 그들이 갖는 지정학적이고도 역사적인 정황으로 인한 특별한 권리들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분단된 여러분의 조국을 하나의 통일된 조국으로 회복시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또한 여러분의 영향력이 전혀 배제된 국제냉전 정치게임의 볼모나 희생으로부터, 강대국들의 군사게임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조국강토로부터 외국군대와 그들의 군대기지를, 그들이 갖다 쌓

아는 핵무기들을 쫓아낼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모든 한반도의 민중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주체적인 경제발전을 주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중 어느 것 하나도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기어코 이루어지고 말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미국의 지배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해방작업이 첫번째의 필수단계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러분의 사회를 재구성하고 재건설하는 일일 것입니다.

위의 과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안팎에서 그리고 세계평화애호 대중들과 더불어 굳게 연대해야만 할것 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한반도만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세계의 평화애호 대중들과 연대하려는 여러분의 진지한 노력과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월남전 당시 미국의 한 반전 운동가가 한 말을 끝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평화와 정의를 향한 우리들의 투쟁을 막을수는 없다"

Charles Scheiner

재유럽 민주한인협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집행위원회 위원장께 보내는 메세지

1988. 8.26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오충일 귀하

존경하는 오충일 위원장님,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신 내·외의 평화를 사랑하는 참가자 여러분,

저희들,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 회원일등은 8월 22일부터 시작,

8월 28일에 끝나는 이번 대회의 성공을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최측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친 참가요청을 받았으나, 여러가지 제약된

여건때문에 귀중한 자리에 참석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회의가

비록 서울에서 열리지만, 대회의 중요성은 실로 저희 해외동포들에게 더욱

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비록 참석은 못하나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국·내외형제가 그리고 남북의 흩어진 형제들이 부담 없이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앞서가는 형제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대회가 있기까지 애쓰신 준비위원 여러분들에게 저희들 머리숙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 대표 정 규 명



1차 Seminar :

세계위기 구조 속에서의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유럽 평화운동의 현황

Jürgen Maier

1970년대 말기와 80년대 초반의 유럽에서는, NATO의 정부들이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서유럽에 걸쳐 새로운 중거리 핵미사일 - 크루즈 미사일과 퍼싱 II - 을 배치하려 하자 이에 반 대하여 거대한 평화운동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 미사일들이 최초로 서유럽 지역으로부터 직접 소련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거리 핵 미사일의 서유럽 배치와 핵전쟁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NATO의 정부들이, 1950년대 후반 이래 처음으로 그렇게 강렬한 평화운동이 일어날 줄은 예견하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화운동의 초기에는 1983년 말로 예정된 이 미사일들의 배치를 성공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었습니다.

NATO는 1981년에 이르러, 소련이 현존 미사일을 폐기한다면 NATO가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 그들도 알고 있듯이 소련측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일방적 군비축소 제안인 - 소위 'Double-Zero Option'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83년 말에 이르르면, 사실상 이 미사일들의 배치가 시작되었고 평화운동은 패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후기에는 평화운동이 둔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INF 조약이 1987년에 타결되자 일견으로 NATO의 배치결정을 지지한 자나 반대한 자 모두 그 결과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NATO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그들의 Double-Zero Option을 받아들였고 평화운동측에서 보면 소련의 SS-20, 22, 23은 물론, 그들이 오랜동안 거부해 왔던 퍼싱 II와 크루즈미사일이 폐기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양측 모두 진정으로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이유가 있었으니 이를 자세히 관찰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서유럽 NATO정부가 배치한 퍼싱 II와 크루즈 미사일은 어느 누구의 관심도 없이 수년동안 배치되었던 SS-20과 같은 소련측 미사일들을 결코 공격목표로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퍼싱과 크루즈의 배치를 공식입장으로 채택한 것은 단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SS-20에 대적할 만한 많은 핵무기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사일 배치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서유럽 정부들의 진정한 의도는 SALT(전략무기 제한협정) II 이후 서유럽 방위에 대한 미국의 핵보장에 더 이상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점 즉, 미국의 "핵우산"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SALT는 강대국들 사이의 전략적 균형을 비준했지만, 서유럽 정부들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우세할 때만 미국의 핵보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핵보장도 미국에게는 자살을 의미할 뿐이며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미국이 전시에 핵무기를 사용해서 유럽을 방어하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NATO 정부들이 찾은 해결책은, 전쟁이 발발하면 즉시 전쟁지역으로 화하며 단지 소련의 동맹국이 아니면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유럽지역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로써 서유럽 정부들은 미국의 핵보장 아래 안전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위협하거나 전략적 수준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핵전에 실질적으로 연루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도 물론 해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미사일의 배치를 주저하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미사일의 사용방법을 놓고 이견을 나타내면서도 결국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에 소련이 Double-Zero Option을 받아 들이겠다고 나서자 미국은 즉각 협상자세를 취했고 유럽 정부들은 더욱 경계의 빛을 나타냈습니다. 미사일 배치를 둘러싸고 일련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미국과 소련은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신뢰할 만한 핵보장'이 없는 상태로 서유럽 지역을 남겨둔 채 협상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소련측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협상에 들어갔으나 결국은 Double-Zero Option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독정부가 암암리에 Double-Zero를 방해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여전히 강력한 평화운동의 물결로 인하여 그것을 공개적으로 확신했 수는 없었으며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소는 결국 그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장해제를 강요당한 유럽의 정부들은 '잃어버린 무기'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곧 찾게 되었으며, 이에 유럽에서 현재 '유럽 군국주의(Euro-Militarism)' 물결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NATO 정부들은 궁극적으로 '핵방위'를 그들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서독정부는 유럽이 하나의 초 강대국으로 가는 길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960년대 이래 그들 자신의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NATO의 군사기구를 탈퇴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핵방위를 실질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자국만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궁극적으로 초강대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른 유럽국가들, 특히 서독정부와 연계하려는 노력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파리의 유럽(L'Europe de Paris)'이라는 꿈은 이제 가시화되고 있으며 작년에만도 점점 활기를 띠었는데 그 업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상최대의 프랑스-독일 합동훈련
- * 프랑스-독일 연합 사령부의 구축
- * 프랑스-독일 안전보장이사회의 설립
- * 프랑스의 서독에 대한 핵보장 연장을 위한 협상
- * 서독에 프랑스제 중성자탄을 배치하기 위한 협상
- * 재래식 무기개발을 위한 협력 증대, 등등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프랑스-서독의 이니셔티브를 놓고 각기 다른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서유럽의 가장 강력한 경제세력과 군사세력의 결합인 프랑스-독일 연합체가 모든 서유럽을 결국에는 파멸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일부에서는 이러한 군국주의의 새로운 역동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들이 이끌어 내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즉, 전적으로 지지하는 아니면 프랑스-독일의 헤게모니를 제한하려고 하든 이러한 조류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이탈리아·네덜란드는 물론 영국정부마저 위대한 유럽의 군사협력을 위해 유사한 보조를 취해왔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미국의 페르시아만 작전에 영국·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의 해군함정이 참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서독정부는 그들의 전후 헌법에 따라 NATO 지역 이외에 해군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미함정들의 페르시아만에서의 작전수행을 돕기 위하여 지중해에 해군을 파견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유럽의 군국주의 경향이 그들 자신의 방위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시에 유럽에 대한 미국 영향력의 감소를 의미하지만 지금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양대정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그들이 군사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유사한 합의가 서유럽의 양대블럭인 보수-기독교 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사회민주주의자의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각속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프랑스가 그러했듯이 — 비록 미국이 영국을 매수하려 하지만 — 유럽인들 자신에 의한 전략핵 미사일의 통제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최소한도 서독의 지배집단이 프랑스와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믿을 수 없는 핵 '방위자'와 교섭하려 하지 않는 동안 프랑스는 그들의 핵미사일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서독정부는 더 많은 통제를 가하려 할 것이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에 대한 연합통제

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프랑스가 이것에 자신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독은 그들 자신의 핵무기를 제조하겠다고 위협할 것이고 결국 1995년에 이르면 비 프로테타리아 조약은 파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독일의 파시즘으로 인해 이러한 위협은 많은 갈등을 아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운동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하기로 그들은 퍼싱과 크루즈 미사일폐기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에 전적으로 만족해 하지 않고 정부가 그것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은 평화운동이 서유럽에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평화운동이 없었다면 NATO는, 고르바초프가 1987년에 INF조약을 NATO가 받아 들이도록 압력을 넣기 위하여 이용했던 더블제로우션을 1981년에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유럽정부는 INF조약을 사보타이지할 더 좋은 명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평화문제로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 * 퍼싱II와 크루즈 미사일이 이제 폐기되게 되자 — 평화운동이 이 미사일들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해 왔다. — 많은 사람들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고, 따라서 전세계가 이제 다시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 * 유럽정부로 하여금 INF조약을 받아들일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바로 Reagan 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자 반미가 평화운동의 추진력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모든 악의 근원인 미국보다는 그들 자신의 정부에 초점을 맞추려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 *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일을 추진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 많은 사회민주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정당이 그러하듯이 유럽군국주의를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극복되지 않은 분기점에서 유럽이 — 아마도 프랑스가 카나키(New Caledonia)와 폴리네시아에서 또는 영국이 남대서양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에서 식민지 전쟁을 일으켰듯이 — 미국과 같이 단지 순항하면서 페르시아만 같은 장소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평화운동은 많은 문제점들을 산적해 놓고 있습니다.

유럽 평화운동의 핵중심주의와 유럽 중심주의는, 이러한 경향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극복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실의 동향에 관하여 의식적인 대응노력을 한 것은 사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그리고 공산당 등과는 별도의 그룹이나 조직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군비축소를 확대하기 위한 조건들은 상당히 성숙되었습니다. 어떠한 군비 확충에도 적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서유럽을 앞지르기 위하여 동독 장벽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러시아 꿈의 오랜 이미지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독역사 이래 처음으로 소련 서기장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 미국 대통령의 인기를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

성마저 그들의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소련의 위협'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지가 50%에 훨씬 못미칠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가 합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하는 숫자가 증가일로에 있어 군담국을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적이 없다면 민중을 군국주의로 이끄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럽의 상황들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대부분의 평화운동은 여전히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럽 평화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소간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는 중국에 있어서 군비축소(무장해제) 세력이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비축소를 위한 강력하고도 공공연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덧붙여 10년전만 해도 거의 볼 수 없었던 소련 외교정책의 쇄신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정도라면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으리라고 상당히 낙관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필리핀의 미군기지 : 민족생존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

Enrique dela Cruz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의아래, 저명한 학자님·활동가와 함께 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평화연구소와 젊은 한국의 동지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강대국의 군사적 시위장인 "비무장 지대"를 사이에 두고,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단된 한국민족에 있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전쟁위협은 단순히 한국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회의에서의 제 임무가 평화·정의·참된 민주주의를 향한 필리핀 국민들의 투쟁이 여러분의 공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전시상태에 있는 필리핀 국민들은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혁명적 갈등 상황속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갈등의 역사적 원인을 점검해 보고 작금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의 혁명적 투쟁의 근원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점령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오늘날 갈등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경제·정치적 세력들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형

성되었고 더우기 미국의 지속적 개입은 현재에 있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1898년 스페인과 해방투쟁을 전개하는 필리핀 국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상륙한 미국은 1899년 초에 필리핀을 식민지로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은 60,000병력을 식민지 전쟁에 투입시켜야 하는 부담을 미국에게 안겨주었지만, 후에 베트남에서 식민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500,000이 넘는 병력을 동원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전형적 형태를 띠었던 것 입니다. 1899년 미국이 필리핀 전쟁에 개입해서 1906년 끝날 때까지 250,000이 넘는 병력을 진압작전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의 사상자는 600,000에서 1,000,000에 이르렀습니다. 실로 무자비한 탄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압군의 무자비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항쟁이 완전히 진압된 것은 지주와의 권력분배라는 형태로 그들의 협조를 얻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였습니다. 즉 미국은 지주의 힘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의 힘을 빌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지주들은 경제적·정치적 힘을 식민지통치하에서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사회격변의 현실은 필리핀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수에 의한 정치·경제의 집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는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전략적 위치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박서' 반란을 진압하는 영국을 돕기 위하여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파견한 데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46년 필리핀 독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영토에 군사·해군기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얻어 냈던 것 입니다.

오늘날, 필리핀은 미본토 밖의 영역에서는 가장 큰 군사적 시설물이라 할 수 있는 수빅만 해군기지과 클라크 공군기지를 포함해서 20개가 넘는 군사적 시설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라크 공군기지 하나만도 그레나다 섬보다 훨씬 큰 130,000에이커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즈음,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안정성과 사용기간문제가 미국의 對필리핀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필리핀인들에게 있어 미군기지가 그들의 영토내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시 민족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중요성은 최근에 공표된 '국가안전회의'의 보고에서 명백하게 강조되었는데, 이는 이후 미국의 對필리핀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군도는 극동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좌우하는 아시아 주변 섬의 요새로서, 그것이 외침이나 내부의 혼란으로 동요되는 것을 미국은 허락할 수 없다. 미국에 있어 필리핀의 전략적 중요성은 상황이 요구하면 방위를 위해 미군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973년의 미상원 외교 위원회의 필리핀 상황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군사기지와 친미정부가 기껏해봤자 불완전한 민주제도의 유지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곧 마르코스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입니다.

심지어 마르코스시대 이후에도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미정부의 태도는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1986년 4월 의회 청문회의 증언에서 Gaston Sigur는 말하기를 “필리핀 국민의 협조와 지지속에서 1991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 클라크와 수빅의 기지들을 유지하려는 우리의 결의를 그 어느 누구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누구도 아닌 다른아닌 바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이같은 진술은 필리핀에서의 군사기지의 유지를 너무도 당연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필리핀 정책이 민주주의적 이상과 인권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전을 위한 순전히 이기적인 고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기지의 연장사용을 의미합니다.

1950년대 이후로 미국의 대필리핀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안정·반공산주의·친미정책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Fulbright가 상원의교관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1969년에 밝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 극명해 집니다.

“우리는 필리핀 정부의 정치·사회적 구조가 심각한 변화를 겪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필리핀 국민에게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Huk)’ 운동으로서 알려진 1950년대의 농민 봉기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깊숙이 개입되었을 뿐 아니라, 레이몽 막사이사이라는 친미 의원을 국방상(이후에는 대통령)에 올리고 반혁명 계획을 진행시켰습니다. 비록 혹은 운동은 미국의 개입과 내부의 역량부족으로 실패하였지만, 이에 미국이 어떠한 성격속에서 얼마나 깊숙히 개입되었는지는 당시 미국무 장관인 Acheson의 보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일 것이며, 원조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기술자들과 고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본전략은 반란의 소지를 줄이되, 그 개혁은 미국의 지배자와 필리핀의 상층부사이의 동맹에 의한 미국 경제·군사 이득에 도전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막사이사이가 약속했던 개혁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었습니다. 지주들이 장악하는 의회에서 토지개혁이 통과될리도 없었습니다.

1960년대 말기에 이르면 막사이사이의 친미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혼란을 빌미로 1972년에는 마르코스에 의한 군사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임자와는 달리 마르코스는 당시에 계속 뻗어나가던 민중들의 외침들을 탄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힘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측으로서는 나중에 하나의 실수로 증명됩니다. 왜냐하면 마르코스는 “시민 캠페인”이라는 방법보다는, 필리핀-미군의 전쟁방법이었던 지역폐쇄조치, 식량수급단절, 화기자유발사지역설정 등의 군사적 해결방법을 마련하였고, 이는 민중들과의 거리를 더욱 더 멀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NPA와 CPP는 보다 효과적인 정치·군사적 전략을 개발시킬 수 있었고 민중의 힘과 대부분의 분파들이 점점 마르코스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자, 미국은 마르코스가 소수의 반란군인과 몇천명의 비무장 시민들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나는 것을 단지 앉아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르코스 축출후에 코라손아키노 대통령의 등장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국민으로서 그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키노는 민족의 재통합을 외치면서 인권운동가, 민족주의자, 노동운동에 호의적인 사람을 각료에 임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사회·경제적 불평 등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동맹국들에게 약속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마르코스하에서 제정된 비민주악법의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모든 것들은 그녀가 집권한지 1년도 채 못되어 하나의 환상이요 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더우기 그녀 자신이 이러한 약속들의 파기를 주도하여 필리핀 민중들에게는 또 하나의 악몽을 가져다 준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필리핀의 사회·경제적 부정의 근원을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 독립, 사회정의, 사회적 진보를 갈망하는 필리핀 민중의 대의를 짓밟는 반혁명 전쟁을 공모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 지배계급과 미국통치자들 사이의 상호이해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상세한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보려고 하였지만, 시간 제약상 여기에서 간단히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같이 산재한 가지적 문제들속에서도, 필리핀 민중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골지역에서도 그리고 도심지역에서도, 생명을 노리는 깡패들의 삼엄한 경계와 군대에 의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중들의 변혁의지는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 오늘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非민주적·반평화적 상황 ; 민중의 힘을 배반한 아키노 정부

Gloria Bouis

먼저 저는 저의조국 필리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드리고 난후, 한국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외세와 독재에 대항해 꾸준히 싸워온 필리핀 민중들의 입장에서 이번의 대회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년전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마르코스의 폭정에 항거해 일어섰을 때에 세계의 관심은 필리핀에 모아졌습니다. 민중의 힘은 승리의 함성이 되었으며 공포에 떨던 독재자 마르코스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의 후견국인 미국으로 줄행랑 쳤습니다. 코라손 아키노는 민중의 힘으로 후계자가 되었고, 아키노를 수반으로 한 새정부는 △ 평화적 개혁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룩하고 △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정의를 달성하며 △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민의 자유를 회복시켜 인권

을 완벽히 보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에 대한 아키노 정부의 약속의 결실로 초기에는 좌익공산지도자를 포함한 마르코스 정권 당시의 정치범들이 많이 풀려나기도 했습니다(미국과 필리핀 군부는 이를 탐탁치않게 여겼지만). 뿐만 아니라 아키노 대통령은 토지개혁과 민족화합을 약속했으며 신인민군과 정전 협정을 체결하고 협상을 벌이자는데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 국가개조계획을 보다 확고히 추진시키기 위해 아키노 정부는 마르코스 압제의 한 도구였던 1972년의 헌법을 폐기하고 신헌법을 선포하여 민중들과의 약속을 구체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즉, 강력한 “권리장전”을 마련함으로써 마르코스 통치시 유행하던 만행에 종식을 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신헌법에는 사회정의 조항이 첨부되어 토지개혁을 통한 부와 권력의 공정한 분배, 노동자의 권리보장, 그리고 필리핀 사회 각계각층의 권리향상에 대한 존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제 및 세습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필리핀에게 정치적·경제적 주권이 있음을 확실히 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의 체계를 갖춘후 아키노는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는 공약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키노는 민중의 힘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약속을 본질적으로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키노는 극우파인 후앙폰스 엔릴레 국방장관을 해임시켰는데, 그리고 나서는 미국의 이익에 영합하면서 엔릴레를 자신들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던 필리핀 지배엘리트의 구미를 맞추어 주기 위하여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아우구스토산체스 노동장관을 해임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키노는 변호사 시절 인권옹호가로 널리 알려져 있던 대통령 언론 대변인인 레네 사귀사고를 조용히 해직시키고, 진보적 성향을 지닌 네네 필리핀 지방장관 역시 해임시켰습니다.

민족민주전선과 평화회담을 열어 민족화합을 부르짖으면서도 아키노는 軍에 반군소탕작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였습니다.(신인민군 부대 추격에 실패한 후 군이 루파오의 양민을 학살한 것도 아키노가 군에 큰 권한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아키노는 반군과의 협상에 있어 사면과 항복 이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자세를 고수,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키노는 마르코스시절 군에 의한 인권탄압을 조사·처벌하기 위해 아키노 스스로가 설립한 대통령인권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대통령관저 앞에서 진정한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평화적 시위를 벌이던 멘디올라의 농민들을 대통령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참히 사살하라는 참극까지 벌인 것입니다.

군부 극우파의 음모인 호나산의 구테타 시도를 겨우 진압한 아키노는 우익의 압력에 계속 굴복해 갔습니다. 그 결과 아키노 내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유일한 진보적 인물인 호커 아로요도 마침내 사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아키노는 정부내 인권옹호가들을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또한 당시 민족주의자며 인권옹호가로 국제적 명성이 높던 호세디오크노가 이끌던 인권위원회를 해체시켰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CIA가 직접 훈련을 맡고 있는 필리핀 군부가 우익자경단과 살인특공대를 조직하려 하자 이 인권위원회가 골치거리로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 실종, 살인, 암살 등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바로 이렇게 성립된 광신적 종교집단과 강패집단의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2년전, 민중의 힘은 민족주의자와 인권옹호가를 정부로 불러들였고,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했으나 평화적 개혁을 통해 사회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아키노 정부는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키노 정부는 정권내의 진보적, 인권옹호 인사들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이들을 대신해 보수적 테크노크라트와 군부요원들을 들어앉힌 것입니다. 롤란도 올라리아, 레안 알레잔드로와 같이 민중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들, 그리고 자경단의 폭력을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에게 은식처를 제공해 준 네메시오 프루덴테는 암살당했으며 민족주의적 노동운동 지도자인 레모빌라는 암살음모를 가까스로 모면하였습니다. 민중의 대변자인 자이메 타데오 KMP의장, 민중민주주의 연합의 지도자인 에리시오 드라 트레신부와 같은 종교인사 등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 해외출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단지 아키노 정부와 민중조직의 다리역할을 했다는 것 뿐입니다.

민중의 힘의 승리 이후 2년간 아키노는 마르코스의 탱크와 군대에 맞서 용감히 싸웠던 민중을 서서히 배반하면서 미행정부, 대기업, 군부, 보수교회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아키노는 공산반군에 대해 무력으로 해결책을 찾고자하는 미국의 계획에 완벽한 동조자가 되었으며, 마르코스 시절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고수하라는 IMF-세계은행의 명령에 굴종하며, 심지어는 마르코스가 끌어쓴 거대한 외채를 지불할 것에 동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마닐라의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있었던 최초의 연설에서 아키노는 노동자의 파업을 극도로 비난하면서 군과 경찰이 “비합법적 노동 호전성”에 강경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토지개혁안을 발표하기는 했으나, 토지개혁실시에 대한 문제는 지주가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한번 민중의 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합헌적 정부하에서는 자경단이 설 자리가 없다”는 충고를, 그리고 필리핀에서 점증하는 자경단의 횡포와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잊기라도 한듯 아키노는 1987년 10월 우익자경단 중 가장 규모가 큰 알사마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그때 아키노는 이 단체가 반군에 대한 투쟁의 “모델”이며 “민중의 힘이 표출된 것”이라고 하여 필리핀 민중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민중의 힘」은 2년전에는 파시스트 군부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키노는 「민중의 힘」이 군부의 확대에 불과한 자경단과 살인 특공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불안정과 반군에 대한 군사적 해결이라는 유일한 목표 아래, 권리장전은 무시되고 사회정의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필리핀에서 아키노를 비롯한 소수특권층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비민주적·반평화적 상황의 일부 모습들입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저의조국 필리핀과 유사한 상황속에서 외세의 억압과 독재의 횡포에 대항해 꾸준히 정의의 전진을 계속해 온 이곳 한반도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나 개인과 Alliance for Philippine Concerns, 한반도내에 현존하고 있는 미국군사기지와 핵무기의 존재에 관련지어 통일문제와 평화

에 관한 중요한 의제를 제기한 역사적인 회의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에 먼저 축하와 감사를 표합니다.

두나라 국민들의 독립을 향한 투쟁은 길고도 험난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필리핀인들의, 미국의 간섭에 대한 저항은 미국이 6백만 인구의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2십 5만명의 군대가 필요하였던 한세기의 전환점인 20세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미국 전쟁은 3년의 세월, 필리핀 남부에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정복하기 위한 운동까지 포함시킨다면 15년의 시간이 걸렸고 60만명의 필리핀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리핀을 휩쓸고 있는 반군기지 운동은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직후 미국군대가 필리핀을 점령하여 독립을 빼앗긴, 1898년부터 이 나라에 강요되어온 식민지주의의 흔적을 청산하려는 필리핀인들의 깊숙하고도 오래된 욕망으로부터 유래됩니다.

1945년 이래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간섭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한에만도 40개의 기지에 4만 3천명의 미국군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점령군은 이 나라의 분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추정하기에, 한국에는 상당의 핵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의 2,000배에 해당되는 크기이고 전 한반도를 방사능이 오염된 황무지로 만들 수 있는 양인 것입니다. 1945년 이래로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서 그들의 이론적 논리인 평화, 자유 그리고 민주에 관한 미행정부의 고상한 선언을 통해 그들의 논리를 밝히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미정책의 진실은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 규정된 군의 필요성이라는 것에 의해 대부분 움직여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의 위치는 세계에서 군사상 그리고 이념상 가장 중요한 경계점인 것으로, 한국안에 있어서의 미국의 세력유지는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의 세력유지면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전쟁의 파괴의 맹위를 경험하였고 또 다른 전쟁의 파괴력에 대해 그리고 강대국들 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그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재건설과 발전이 한국문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로 증명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1972년 7월 4일 한국의 두 정부가 체결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선언이었습니다.

필리핀과 같이 한국 역시 미국의 핵 테러에 의한 불모입니다. 이것은 두나라에 대한 뻔뻔스러운 자주권의 침해이며 미국의 세력지배를 위한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를 소비해 버릴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들의 무관심과 인종적 편견의 표시인 것입니다. 한국민중들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들의 위험한 지정학적 놀이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과 평화통일”이라는 부름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용기있는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강대국에 맞서고 무기경쟁에 휘말려 들지 않는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평화와 군비철폐의 거리를 좀 더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길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들을 향해 지속적인 투쟁을 하여야 하며 이 문제들에 대해 일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각기의 단체들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의와 자주권의 회복에 관한 전술과 계획의 연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의 성공을 위해 행동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두가 모색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목표란 미국이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간섭을 중지하고 필리핀과 한국 국민들 스스로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과 한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기지와 간섭에서 벗어날때만이 또한 미국의 국민들 역시 전쟁과 군비경쟁에 의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와 지는 것이며 지구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정의롭고 공평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리핀과 남한에 설치된 미군과 핵무기를 즉각 철수하라”

“동북, 동남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비핵지역을 보장하라”

“한국의 통일과,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자주권 침해의 책임을 갖고 있는 미국은 즉각 간섭을 중지하라”

— 한국 민중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

한반도와 필리핀에 있어서의 민족해방운동의 현실과 이상

Renato Constantino

두 개의 한국이라는 분단의 비극은 고통스러운 하나의 파라독스입니다. 한나라가 두 개의 상이한 사회 체제로 쪼개져 있으니 한국인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하겠지만, 더더욱 가슴아픈 사실은 그 분단이 동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분단은 단지 정치적 장벽에 불과합니다만, 그것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치명적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이 분단의 지속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이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분열에서 이득을 보는 자들 뿐입니다.

1945년 남한을 점령한 이래 그리고 1953년 한국동란이 끝난 이래 미국은 이 분단을 지속시킨 주된 당사자였습니다. 맹목적이고도 기만적인 ‘반공’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은 지금까지도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선악’의 두 진영으로 분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한에서 철수하기를 거부하면서 아시아 최대의 핵기지로 남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이제 서구의 4배가 되는 미국의 핵무기가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남한이 서구와 일본의 그것과 대등한 군사적 중요성을 지닌 나라인 것입니다.

미국 자본의 남한에서의 확대는 저임금이라는 유인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불균형적인 경제개발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형평을 도외시한 성장에의 강조는 심한 빈부의 격차를 낳았습니다.

일본 자본 역시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구식민지 편제가 이제 또 다시 새로운 차원으로 부활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한인들은 미일의 이중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통일은 한국인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사회주의 북한과 미군이 주둔하는 남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한, 이 지역은 핵전쟁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위험한 인화점으로 계속 남을 것입니다.

남북한이 두 개의 사회체제의 공존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연방 국가로 통일시키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양자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서로를 신뢰한다면 남북한은 궁극적 통일을 향한 긴 도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군대와 조사기지가 그대로 한반도에 남아 있는 한, 진정한 통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미국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40년 이상 남한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자국 군대의 수를 유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도발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이 지역의 긴장 완화를 꾀하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것입니다.

세계적 긴장은 미소가 지난번 체결한 INF 협정에 의해 다소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규모 전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는 지역 분쟁들도 상대적인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캄푸치아에서, 그리고 심지어 페르시아만에서조차도 긴장상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백히 평화 체제로 진정될 수 있는 한반도에서만이 유독 긴장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지, 이것은 하나의 패러독스입니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국의 군사 기지가 계속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분노를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 기지가 배치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핵으로 인한 절멸이라는 위협이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 위에 생존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해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또한 새로운 수단을 발견했습니다. 땅덩어리가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에서도 역시 반민주 세력이 민족해방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박해하고 있습니다.

분열이야말로 이러한 억압상황을 지속시키는 장본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열은 고문과 폭력

을 부릅니다. 교외에서는 물론 대통령궁 바로 앞에서도 학살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광주사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애국적 필리핀인들은 이 학살 사건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 역시 북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한국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에는 반드시 자결권이 확보되는 진정한 독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진정한 진보, 이들은 필리핀과 한국 모두가 열렬히 바라고 있는 소중한 목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공통된 이상으로서 우리 양국의 사람들을 공동투쟁의 대열에 함께 서게 만들 것입니다.

중남미 민중들의 反평화적 상황

Christian Dela-Rosa

저는 아메리카대륙에 거주하는 중남미 민중들의 동지적 뜻을 전하고자 왔습니다. 또한 이질적인 문화·언어의 장벽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매우 유사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메시지는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민중들의 희망과 포부를 담은 것입니다. 그들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똑같은 감정과 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남미의 민중들은 전쟁의 와중속에서 가난과 기근 그리고 죽음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문화·가족을 파괴하고 있는 부정과 억압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 좋은 상황들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당하고, 살해당하고 그리고 행방불명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성서에서 약속한 새로운 현실, 즉 그들의 자녀들은 기근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갈 집을 건축하며, 그들이 노동한 댓가로 먹고 살며, 그리고 나이가 들어 죽을 수 있는 날을 믿기 때문에 갖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민중들은 여러분과 같이 이 세계의 많은 자원들을 분배하여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위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이 그들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와 평화를 그들의 손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카라과아인들은 그들의 혁명에 온 힘을 쏟고 있고 엘살바도르인들은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해 투쟁하며, 구아테말라의 인디언들은 그들의 문화적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의 입장에서서 연합 감리교 선교사인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가지 점에서 희망을 공감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창조의 방해”라는 제목하에 미국의 연합 감리교로부터 온 목회자 편지입니다. 모든 연합 감리교에까지 전달된 이 편지는 핵무기와 그것이 인간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대국과 다른 나라들이 지구를 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한 여전히 많은 핵무기들을 계속 양산해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 편지는 “창조”가 전면적 공격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 의하면, “창조”는 위기에 처해 있고 공격받고 있으며 가난한 자들의 희생으로, 전세계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굶주림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무기에 반대하고, 우리가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리고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도와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연합 감리교회의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두번째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000 만 연합 감리교도의 정책 결정기관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결의문에서 채택하기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남한과 북한의 민중들은 통일에 대한 강렬한 염원을 표해 왔다. 모든 기독교인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에서의 신뢰를 창조하며, 그들의 조국을 재통일하려는 노력들을 지지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투쟁이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민중들에게 알려져 있고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쟁은 다른 나라의 투쟁과 부분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화와 언어에서 거리가 먼 민중들이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똑같은 기대, 똑같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중들은 그들 자신의 투쟁과정에서 여러분의 투쟁과 여러분의 실상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많은 우리의 문제들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많은 어려움과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의 민중으로서 참어나가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민중들에게는 새 세계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각자의 노력들, 즉 여러분은 한국에서 우리는 고국에서 새로운 세계의 구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새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구약성서의 살롬(정위가 구현된 평화)이라는 예언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약성서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전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일부분을 의미하며, 정위가 실현된 평화를 구현할 책임을 우리는 함께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과 투쟁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른 나라의 많은 민중들이

의세의 내정간섭에 대항하여 역시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을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국제주의의 전망 - 남북관계에 대한 일본의 시각

武騰一羊 (Muto Ichiyo)

제3세계의 민중이 그들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투쟁함에 있어서 일본의 민중운동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논문의 목적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문제 자체의 해명이 꽤 만만치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민중운동세력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에서 살고 있는 진보세력들은 종종 자국의 국익에 영합하면서 주변부의 민중들에게 (‘임시문서’ 등의 형식을 빌어) “그들 자신의 진보 개념을 내세워” 왔습니다. 레닌은 이러한 ‘기회주의’가 발생하는 원인이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수탈한 초과이윤을 가지고 노동자계급의 특권층을 매수하기 때문이라고 갈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지금까지의 이리저리한 좌파 운동, 특히 중심부의 노동운동이 주변부 민중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레닌의 이 역사적 조망은 지나치게 단순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러한 일반적 현상의 원인으로 이를테면 ‘배반’이라는 등의 주관적 요인을 들면서 그것으로 설명을 다 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역시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구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쩔수 없다는 식의 숙명론에 빠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왜냐하면 그 어떠한 구조도 완벽한 것은 없기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와 정반대로 진보세력의 남북연대를 불가능에 가깝도록 만들고 있는 이 구조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여 그 약한 틈들을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전면화되기까지, 세계 구조의 특징은 미국의 주도권 하에서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속적인 번영을 구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세계 구조는 바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던 모순들이 터져 나옴에 따라 격동속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 진보세력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다루려 하는 것도